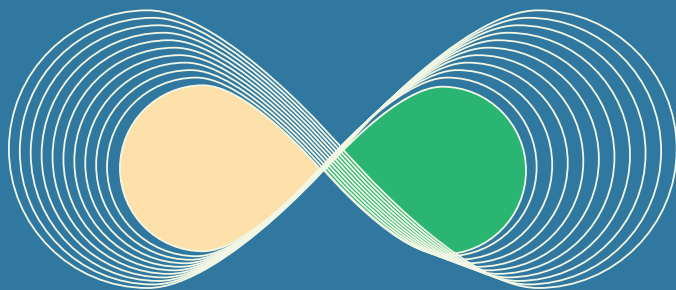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한 전·현 활동가 연구

: 계속하는 마음, 그만하는 마음

_난다, 공현, 피아





_지속가능한마음

난다 _ n23podo@gmail.com

강제야자와 체벌 등 차별과 폭력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학교를 바꾸고 싶어서 학생 인권조례제정운동, 학습시간줄이기운동 등에 함께했고, 지금은 '청소년인권운동 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청소년인권을 '한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과제'로 마주하는 사회를 꿈꾸며, 청소년인권운동이 지어갈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연구했습니다.

공현 _ gonghyun@gmail.com

고등학생 때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여 30대가 된 지금도 그 활동가로 살고 있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나 문제의식을 정리해왔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더 커지고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가의 지속에 대한 이번 연구를 했습니다. 나와는 참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피아 _ juyeon1331@gmail.com

청소년 때 원가정이라는 악의 소굴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활동가들을 만나 지금껏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 온 나의 구원자, 청소년 인권운동. 누구보다 쉽게 포기하고, 누구보다 쉽게 질려하지만 그런 나라도 이어나가고 싶은 운동을 고민하며 연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한 전·현 활동가 연구

: 계속하는 마음, 그만하는 마음

목 차

여는 이야기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을 넘어: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5

1부 청소년인권운동은 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나 9

(1) 연구의 대상: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격과 역사 11

- 1) 청소년인권운동의 개념과 전사(前史)
- 2) 청소년인권운동 1세대(1995~2005년)
- 3) 청소년인권운동 2세대(2006~2016년)
- 4) 청소년인권운동 3세대(2017년~현재) 그리고 연구 범위

(2) 연구의 주제의식: 청소년인권운동 지속가능성의 의미 24

- 1) 청소년인권운동과 운동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 연구
- 2)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만 해야 하나?”
- 3)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며 먹고살 수 있을까?”
- 4) 안정적·전문적·지속적 활동가의 자리
- 5) 연구 주제의식

(3) 연구 방법 및 면담 참여자 정보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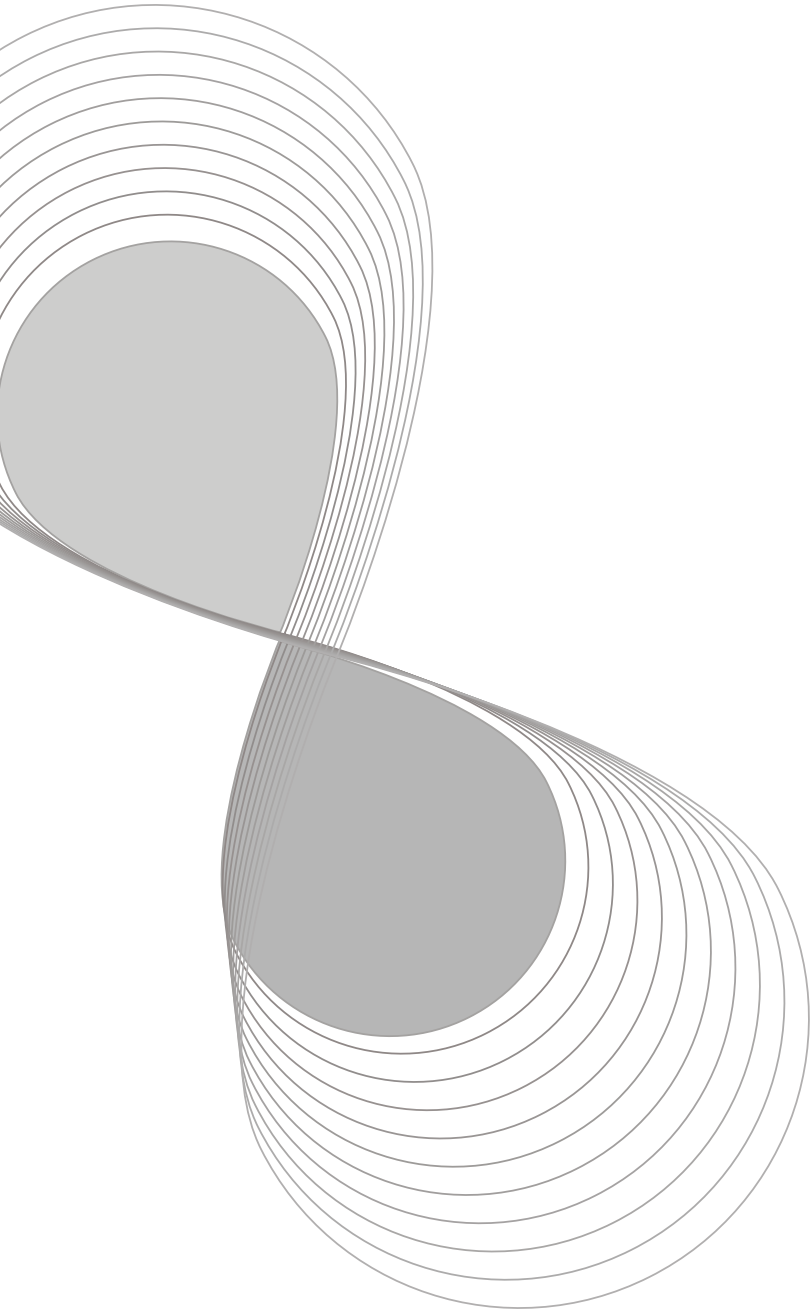
2부 활동가 면담을 통해 발견한 현황과 과제 35

(1) 어쩌다 청소년인권활동가: 운동 시작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 37

(2) 계속하는 마음: 운동 참여와 활동가 정체화 과정의 동기와 자원 44

- 1)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향에 대한 동의와 공감
- 2) 운동이 주는 해방감, 생동감, 성취감
- 3) 함께하는 관계와 친밀감, 공동체성, 소속감
- 4) 운동의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의미
- 5) 운동에 대한 아쉬움과 의지, 책임감

(3) 그만하는 마음: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	57
1) 활동가 정체화의 어려움	
2) 운동의 열악한 상황, 반복되는 실패	
3) 동료의 부족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4) 과중한 업무량과 생계 문제	
5) 삶에서의 불안과 차별, 사회 안전망 부재	
6) 사회적 이해 부족	
(4)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	82
1) 휴식과 치유를 통해 삶을 돌보는 일	
2) 생계 보장 등 재정 마련	
3) 운동의 의미화와 활동가로서의 정체화	
4) 활동가로서 훈련과 성장	
5) 전망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료 관계	
6) 다른 운동과 연결을 통한 확장	
닫는 이야기 우리가 이어갈 삶과 운동: 연구를 마치며	101
(1) 그만하는 마음과 계속하는 마음이 만나는 순간	102
: 다양한 네트워크 가능성 모색	
(2) 남은 과제와 고민	109
(3) 짧은 에필로그	112
 참고 문헌	 114



여는 이야기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을 넘어 : 연구를 시작하기까지

“언제까지 청소년인권운동 할 거야?” 연구자 중 난다는 스무 살이 되었을 무렵, 몇몇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곤 했다. 이런 질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대개 “이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운동 안팎에서 있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질문을 받고 압박을 느끼는 청소년인권활동가¹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0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가 스무 살이 되어(혹은 대학에 진학한 후)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두고 멀어지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비청소년인 채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활동가는 드물었다. 2008년 청소년으로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활동가 중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드물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함께했던 사람 중 상당수는 조례 제정 운동이 마무리된 뒤 오히려 운동에 지쳐서 떠나갔다. 2018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 앞 청소년 참정권 농성장을 지켰던 사람 중 상당수가 운동을 떠났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동료를 자주 떠나보내며, 이 운동을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이라고 부른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하는 마음을 짐작해 본다. 다른 사람에게 지칠 때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도 있다. 운동이 더 커지기 위해 갖춰야 할 것, 더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소수만 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느끼는 외로움, 동료를 떠나보내며 느끼는 상실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 느끼는 회의감도 있다.

1 본 연구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는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활동가라 볼릴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는 없으나, 운동의 주체로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자 스스로 활동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활동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가임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는 ‘활동가’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언제까지 청소년인권운동 할 거야?”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응, 나 오래오래 계속하려고”라는 말은 왜 바로 나오지 못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운동’ 또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하면,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 또는 ‘청소년 보호(구호) 활동’을 주로 떠올린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 또는 세대에 초점을 맞춰 자발적 저항과 참여의 장면을 부각하거나, 피해를 보고 곤경에 처한 어린이·청소년을 구하고 돕는 어른들의 활동을 떠올리는 것이다. 청소년인권이라는 의제를 다루며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모두 운동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연대하는 운동은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다.

운동 사회 안에서도 종종 청소년인권운동을 한때 잠깐 하고 그만두는 것, 청소년들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청소년인권운동은 ‘부문’ 운동이며,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단체나 그룹도 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의 활동가들은 쉽게 듣지 않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식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청소년인권운동과 그 활동가들을 둘러싼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인권운동을 자신의 운동으로 삼아 ‘청소년인권운동의 당사자’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들이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청소년인권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맞서는 운동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활동, 목소리, 주장, 이론 또한 이 사회를 바꾸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운동)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청소년인권운동 또한 다른 소수자운동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이고 지속·발전되어야 할 ‘사회운동’이라는 인정이 부족했고, 활동가들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면이 있다. 활동을 지속하며 우리는 운동의 성공이 운동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활동가를 지치고 떠나게 만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2019년 인권재단 사람에서 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조사’에 몇몇 청소년인권활동가가 참여했고, 이러한 조사와 이후에 이어진 인권운동 차원에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개선과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을 위한 노력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운동의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이고 필요한 지원과 노력은 무엇일까를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꾸준히 활동하며 이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운동의 조건 및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우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경험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상황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전·현 활동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오랫동안 청소년인권운동을 해 온 소수 활동가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한 활동가들의 경험과 생각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짐작했다. 그렇게 “계속하는 마음, 그만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연구를 계획했고, 서울NPO지원센터의 ‘2021 활동가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을 통해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에 면담자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 사이에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리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환경과 시대 조건 속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연구에 흔쾌히 참여해 준 사람들만 면담을 할 수 있었기에 청소년인권운동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운동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힘겨운 환경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자리를 지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그 자체가 연구자들에게도 재충전과 치유의 시간이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활동의 역사를 쌓아 왔지만, 그 속에서 서로 공명하는 문제의식과 상처, 에너지를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 중 10년 이상 활동한 공현과 난다에게는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 왔거나 이전에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들과 고민을 터놓고 나누는 자리였고, 4년 차 활동가인 피아에게는 잘 알지 못하던 예전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접하는 기회였으며, 연구자 모두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 연구에 협력해 준 전·현 청소년인권활동가 8명과 인접인권운동의 활동가 2명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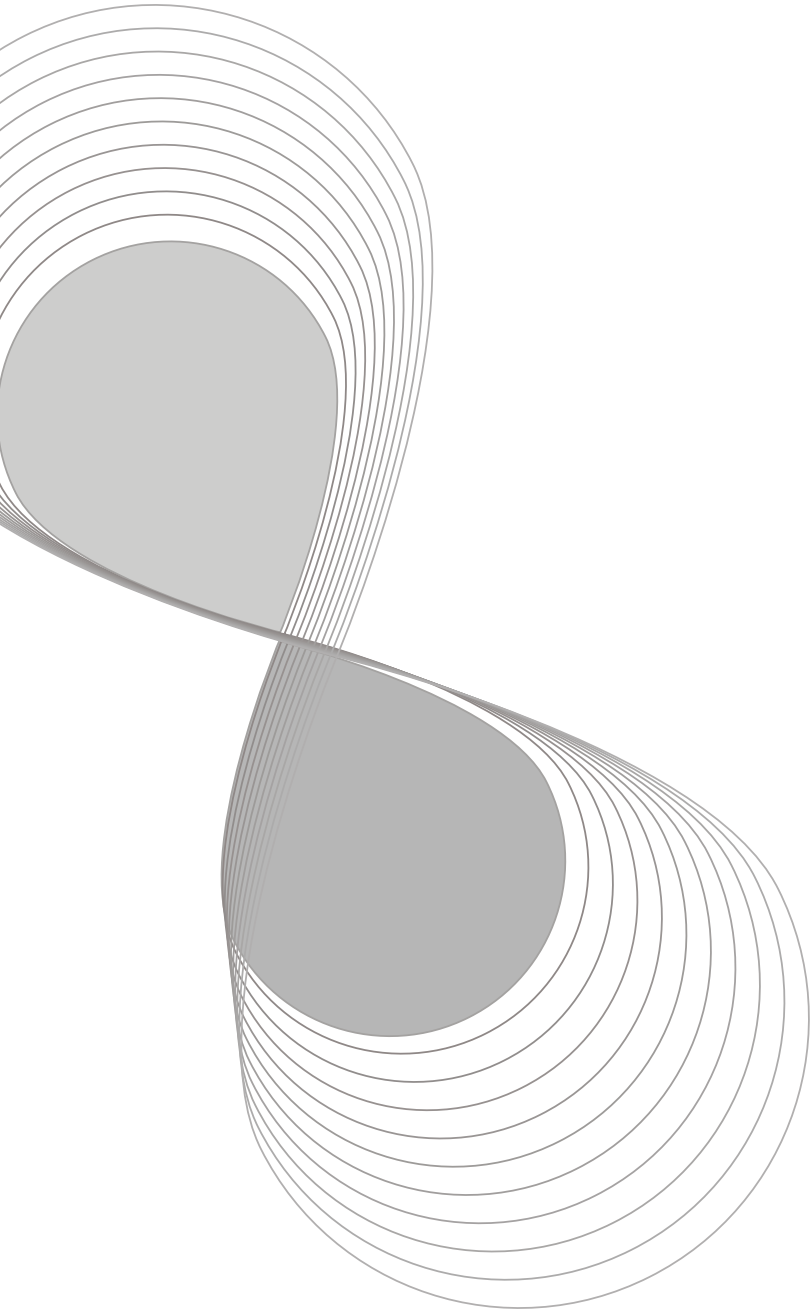
면담을 한 뒤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자들의 토론을 거쳐 결과를 정리했다. 또한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

고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와 나름의 세대 구분, 지속가능성이란 이름으로 운동에서 논의된 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1부에 포함시켰다. 1부에서 소개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는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을 총괄했다기보다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어떤 운동의 흐름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배경이자 연구 대상인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어떤 운동인지를 한계 지어 서술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연구는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어쩌면 소수만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깊게 파고든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지닌 사회적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인권운동과 그들 활동가의 경험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연구가 다른 소수자운동이나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 기대한다.

1부

청소년인권운동은 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나



(1) 연구의 대상: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격과 역사

1) 청소년인권운동의 개념과 전사(前史)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²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폭력·차별·억압을 없애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회운동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소년운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계몽이 주된 활동이었지만 이와 함께 ‘소년해방’을 목표로 제시하고 ‘어린이 인권’ 등을 이야기한 경향성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천도교소년회 등은 소년운동의 목표가 어린이가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 압박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장유유서(長幼有序)를 폐하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 학생들이 요구안으로 발표, 배포한 문건에는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언론·사상·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교 운영에 학생 대표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예는 근대 사회에서 청소년 억압에 반발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소년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시대의 흐름 속에 사라졌고, 특히 소년해방을 주창한 운동의 맥은 단절되었다. 그 후 청소년인권 문제를 다룬 조직적 운동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이른바 ‘고등학생운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내지 사회변혁운동의 일부였다. 고등학생운동은 중고등학생을 사회 변혁과 교육 개혁의 주체로 강조했으며, 자주통일 및 노동해방을 비롯해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학교의 민주화와 경쟁교육 반대, 학생

² 청소년은 법에 따라,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청소년이란 법적·사회적·문화적 개념으로, ‘어린 사람’, ‘미성년자’, ‘어린이’, ‘청소년’, ‘아이’ 등 성인에 비해 연령이 적은 존재로서 권리를 제한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의 개념과 겹치며, 「민법」, 「공직선거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 영역을 고려하면 19~20세 미만의 존재, 10대 또는 그보다 어린 사람, 어린이·청소년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

인권 보장을 지향했다. 특히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경쟁과 차별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하던 교육 제도가 이들의 주된 저항 대상이었다. 고등학생운동은 1990년대 초·중반, 공안정국 조성 등 정부의 탄압,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적 민주화 달성 이후 대중적 공감대 감소, 그리고 시대적·문화적 변화 속에 쇠퇴했다. 현재에도 고등학생운동에 조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청소년운동 단체와 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비록 '고등학생운동'은 사라졌어도 지금의 청소년인권운동 또는 진보·좌파적 정치 성향의 청소년운동에도 고등학생운동의 흔적과 흐름은 남아 있다.

2) 청소년인권운동 1세대(1995~2005년)

한국에서 청소년인권 이슈에 집중한 일종의 인권·시민운동으로서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맥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잡을 수 있다. 1990년대는 많은 인권운동 및 시민운동이 분화하고 새롭게 발아한 시기였고, 청소년인권운동도 그러한 조류 속에 짝을 틔웠다. 199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진전되고, 인권·복지 등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민주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상,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과의 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의 현실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1990년대 중후반 자생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직과 담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온라인 공간이 주된 통로 구실을 했다. 1990년대는 PC통신이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막 인터넷 보급이 시작된 시기였다. 그 당시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들의 불만을 공유할 수 있었고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95년 한 고등학생이 보충·자율학습 강요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PC통신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 한 예이다. 청소년이 개발한 포털사이트, 청소년 웹진 등이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학생인권,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활동이 일어났다.

2000년 일어난 노컷운동,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첫 번째 사례였다. 노컷운동 이후 2000년대에는 다양한 청소년인권 이슈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새로 출범한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서, 때로는 언론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일상에 잠재해 있던 인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3년, 청소년인권단체와 교육운동단체가 함께 ‘학생체벌금지연대’를 꾸렸다. 정규 수업 시간 외의 추가적인 보충·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관행이나 0교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요구와 학생회 법제화 요구 등이 부상했다.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던 종교 행사 및 종교 수업 강요에 항의하며 고등학생이 나서서 1인시위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교육 정책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2005년에는 다시 한번 ‘노컷운동’이 일어나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집회가 진행됐고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내 시위, 학내 서명운동 등이 일어났다. 2005년 5월에는 정부의 내신등급제 도입 등 입시 정책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청소년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학교 외의 영역에서도 확산되어 갔다. 2002년부터 평화적 대중집회 양식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었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으며 민주노동당 등에서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주장과 함께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등에서 모의 투표와 입법 청원이 이루어졌다. 아르바이트 등의 임금 노동을 하거나 실업계고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문제도 2000년대 초반 공론화되었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청소년인권운동이 자생적으로 시작되고 청소년인권 의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2005년 전후)까지를 청소년인권 운동의 1세대 시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때는 청소년인권 의제들이 학생인권 영역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주로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고, 구체적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

는 예는 많지 않았다.

1세대 청소년인권운동은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 주축이 되었고 20대 주체도 일부 함께했다. ‘어른들에게 좌우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것은 당시 청소년인권운동이 다른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자신을 구분 짓던 중요한 지점이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중 상당수가 청소년에서 벗어나게 되면³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시되거나 적어도 활동과 단체 운영에서 소극적 역할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별다른 자원이 없던 청소년인권단체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 시기 만들어진 대부분의 단체가 짧으면 2년, 길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단체가 해산하거나 활동 역량을 상실했다. 단체를 만든 초기 주체들이 나이를 먹어 활동을 그만둔 뒤에 단체가 유지되지 못했고, 2~5년은 단체가 역량을 축적하고 후속 활동가를 양성하기에는 너무 짧았던 탓이다.

3) 청소년인권운동 2세대(2006~2016년)

2005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는 운동을 돌아보고 이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일었다. 2005년 5월 21일 열린 토론회 ‘청소년인권운동, 미래를 본다’와 2006년 2월 19일 열린 토론회 ‘청소년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장기적 계획 없이 단체가 만들어졌다가 몇 년 만에 사라지며 축적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촉발됐다. 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도돌이표 운동’, ‘하루살이 운동’이라는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 형성, 단체 조직과 네트워킹 강화로 구체화되었다. 이후 2006년 연대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국 조직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만들어지는 등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첫발을 뗐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 강화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 마련과 현안 대응 △청소년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과 연구 작

3 이 기준은 10대를 벗어난 시점, 대학에 진학한 후 또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를 지난 후 등으로 단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업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을 목표로 내건 것은 그 당시 운동 주체들이 품고 있던 고민과 과제를 담고 있다.⁴ 이들 단체는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문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운동, 학내 활동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활동, 거리집회와 토론회 등을 기획하는 한편, 청소년인권운동의 언어와 요구를 모으고 정리했다.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은 제도화 형태로 성과를 만들어 갔다. 먼저 2005년 이후로 이전에 제기되었던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보충·자율학습 강요 금지, 종교 자유,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의 학생인권 관련 의제들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초에는 이슈화에 이어 행정부(교육부 등)의 조치에 의한 해결을 기대했으나 교육부·교육청 등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을 의지가 없어 보였기에 입법부를 통한 법 제정·개정이 해결 경로로 부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인권법안'이라는 이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두발 복장 자유, 체벌 금지,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강제 보충·자율학습 금지, 학생회 자치권 및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 교육운동단체 등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며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안은 끝내 국회 통과가 좌절되었다. 그 대신 200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조문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학생인권을 제도화하려는 운동은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운동의 형태로 변화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본래 2005년 전후로 광주 등에서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고 지역 교육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8년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나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했던 주경복 후보 등 이른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4 공현(2016), 「청소년운동? 청소년 '인권' 운동?」, 『인권오름』, 제474호.

년인권운동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안을 만들고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끝에 2010년 전국 최초로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1년 광주에서 그리고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서울에서 연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체벌 금지 역시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던 체벌 사건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선언했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벌을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이슈화되고 대책 마련이 요구되자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자⁵가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청소년인권 신장이 제도화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 한편,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정치적 권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촛불집회였다. 2008년 5월 사람들은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종로 등을 다시 한번 촛불로 가득 메웠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여러 거점 도시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4대강 사업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광장을 연 사건이었다. 이 촛불집회의 특징은 청소년 참가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활발한 집회 참여는 정부와 학교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도 여러 건 제기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미친소를 몰아내는 10대연합’ 등 청소년들의 자생적 단체들도 몇몇 조직되었고, 청소년인권운동이 확대되고 그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정치적·사회적 참여에 나서는 청소년 수도 증가했다.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활성화된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단체들이 그해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를 표방하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일제고사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청소년인권운동은 다른 교육운동 진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끈질기게 수년간 반대 활동을 하는 운동 주체로 부상했다. 나아가 2011년에는 ‘투명가방끈’이라는 이름으로 입시와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통해 정

⁵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부모 외에도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쟁교육과 학력 차별, 대학서열화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 등장했다. 투명가방 끈 운동의 초기 주체와 중심 활동가들은 청소년인권운동 출신으로, 이 운동은 청소년인권운동이 발전하면서 입시 정책 등 교육 문제에 개입하고 이슈화하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인 동시에 운동 주체들의 삶 속에서 경쟁적 교육과 대학 진학 문제에 대한 실천 양식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 시점에는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과 요구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는 ‘청소년 정치적 권리 내나라 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 청소년 정당활동·선거운동 보장,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 지역 청소년 참여 제도 확대 등으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집약하여 제기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18세로 또는 16세로 하향하라는 요구를 발표하며 모의 선거를 진행했다.

2010년대 들어 청소년의 사회 참여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많은 청소년이 참여했다.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도 청소년들이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때에도 이어져 중고등학교 단위에서 또는 특정 지역 청소년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청소년 집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약 10년간을 청소년인권운동의 2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 활동의 외적 특징은 1세대에 제기된 청소년인권 이슈들을 입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일부 성과를 이루었으며, 집회나 선거를 계기로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치·사회 참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운동 내적으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과 담론이 발전하며 개별 사안의 입장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의 및 청소년 억압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담론 발전과 자기 정체화를 보여 주는 문서가 다음의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이다.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지금 우리의 청소년운동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청소년운동은 쌓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더 깊어지고 다양해진 목소리와 실천을 바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운동의 존속에만 급급하던 시대를 넘어, 이에 더해 발전과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해방을 위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청소년운동 안팎으로 알리는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2015 청소년활동가마당 - 여긴 어디? 나는 누구?>에 참여하여 청소년운동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은 각자의 소속 단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청소년활동가로서 청소년운동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서 있는 위치와 걸어갈 방향 그리고 걸음걸이를 밝히고자 한다.

1. (청소년운동의 목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 차별, 폭력, 착취에 저항하며, 청소년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개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청소년의 정의)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은 사회에 의해 '미성년'이라고 구분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연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제도적·관습적·문화적 구분의 기준이 청소년운동의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 범위는 대개 만 18세~20세 미만이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나이나 더 많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청소년의 성격) 청소년은 소수자인 동시에 보편적인 집단이다. 현재 청소년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나, 모든 청소년은 언젠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며 모든 비청소년은 한때 청소년이었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계급성을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속한 가족의 계급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은 한마디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채 유예된 존재이다. 청소년운동은 단지 현재 청소년인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투쟁할 뿐 아니라, 특정 연령의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억압하는 현상과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4. (청소년 억압의 성격) 이 사회에서 청소년은 국가와 자본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되며,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수단,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 억압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맞춰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 억압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는 학교와 가족이다. 학교제도는 청소년이 자본주의적인 경쟁 및 차별 논리,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현 가족제도는 청소년을 친권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양육과 생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계급을 재생산한다. 학교와 가족뿐만 아니라 비청소년 중심의 각종 제도와 문화 역시 청소년 억압의 중요한 요소이다.

5. (청소년 안의 다양성) 청소년들은 단일한 존재들의 모음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계급, 성(性), 사상 및 이념, 신체적 상황, 그밖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자 다른 억압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여러 차원의 중첩된 억압을 겪는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저항한다.

6. (청소년운동의 주체)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이다. 청소년 당사자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주체로 나서고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세력이 되는 것은 청소년 해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소수의 엘리트나 '선한 어른들'이 청소년 해방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청소년운동과 나이주의)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에 반대한다. 나이주의는 연령에 따른 위계, 나이에 따른 차별 등의 문화와 제도를 가리킨다. 청소년들은 나이주의에 의해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억압을 겪기에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나이주의는 운동사회에도 존재하며, 그로 인해 청소년활동가들은 동등한 활동가로서 존중받지 못하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

이 나이를 이유로 운동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활동가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한다.

8. (청소년운동의 정치성) 청소년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다. 사회를 운영하고 사회정책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이고, 따라서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겪는 일상적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에 저항하는 청소년운동도 정치적인 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적 활동이 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반대한다.

9. (청소년운동의 독립성) 청소년운동은 다른 운동에 종속되지 않은 운동이다. 청소년운동에 '배후'가 있다고 여기거나,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비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거짓이다. 또한 청소년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의 '준비과정'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당연한 것이지 특별하거나 대견한 일이 아니다.

10. (청소년운동의 고유성)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만의 문제의식과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청소년 억압은 다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관점에 의한 정세 판단과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갖고 활동한다.

11. (청소년운동의 연대성) 청소년 해방은 인간 해방과 분리되지 않는다. 청소년 억압은 우리 사회의 각종 억압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우리 사회의 인간 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 그리고 인간 해방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운동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청소년운동의 지향을 함께 선언하며,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모든 청소년의 해방을 향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단계에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해방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청소년 해방은 전체 사회구조의 변혁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활동가이고, 우리의 옆에는 청소년 해방을

함께 이루어 낼 동료가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또한 2세대에는 1세대에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과 조직을 지속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아니라도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활동 방침이 운동 주체들에게 받아들여졌고, 10대 때 활동을 시작하여 20대가 되어도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20대나 30대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간혹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청소년인권활동가’로 불리고 정체화한 주체들은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혹은 30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년운동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은 유지되었고 청소년의 자력화와 조직화, 그리고 청소년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운동의 주요 방법론으로 여겨졌다.

4) 청소년인권운동 3세대(2017년~현재) 그리고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세대 구분에 이어, 2017년 이후부터 현재의 청소년인권운동을 3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2017년 이후의 시대적 특성은 먼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의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당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의 모습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페미니즘이나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사회 이슈의 대두이다. 기존 사회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담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고, 청소년 역시 이러한 담론을 접하고 의식화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수행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꼽을 수 있다. 2017년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연대'가 출범했고, 거리집회, 토론회, 입법 요구, 국회 앞 농성 등을 거쳐 2019년 12월 '18세 선거권'을 실현시켰다. 18세 선거권 실현 이후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라는 요구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청소년을 사회적·정치적 주체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청소년인권운동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쿨미투'도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활동 의제이다. 2017년부터 학교 안에서의 성추행·성폭력 및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을 SNS에 고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18년부터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고발과 이슈화 운동이 일어났다. 스쿨미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300건이 넘게 제기될 정도였고⁶ 그 중 대부분은 교사에 의한 가해였으며 일부는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한 가해였다. 교사에 의한 가해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이 비민주적인 학교 구조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스쿨미투 운동에서는 성별 간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이를 청소년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공식 요구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나이주의를 비판하는 문제의식 속에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언어문화 및 인식을 비판하는 활동, 사회 전반에서 활성화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 학력·학벌 차별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 등이 시도, 기획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두발·복장 규제나 학교 운영 참여 등의 학생인권 이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제화하고 해결하려는 모색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의제와 활동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상세한 요약과 평가는 후일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3세대의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에서 중요하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청소년만 청소년인권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침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이 10년 넘게 꾸러졌지만, 이제는 장기간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생계 문제 및 번아웃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인

6 「[단독] 3년간 스쿨미투 332건…교육청, '사생활 보호' 이유 비공개」, 『국민일보』, 2020년 10월 6일.

권운동 안에서 비청소년 활동가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질문으로, 또 청소년인권운동을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장기적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로 제기된다. 단체와 상황에 따라서 상근으로 생계비를 보장받는 활동가의 자리 확보와 관련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활동가에 대한 체계적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상황 속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에 관해 어떤 점이 미비한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운동 참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운동만이 아니라 여타의 인권운동이나 소수자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과 기반 위에 있기에 본 연구는 주로 2세대 시점에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의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 가지 이해를 전제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의 대상 범위가 청소년인권운동이라 이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주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본 연구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고등학생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의 경험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기관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문화, 역사적 맥락 등이 앞서 설명한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과는 서로 다르고, 경험과 문제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교육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사회활동' 등을 경험한 청소년 및 활동가들의 경험도 또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자생적·자발적으로 발생하여 조직화·의식화되고 전개되어 온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의와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기 바란다.

(2) 연구의 주제의식: 청소년인권운동 지속가능성의 의미

1) 청소년인권운동과 운동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 연구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운동은 몇 차례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었다. 첫째, 청소년인권 의제의 성격을 탐구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연구들이 있다. 배경내(2003)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양돌규(2007)의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과 교육운동에 던지는 의미」, 최윤진(2016)의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인권 의제의 사회 구조적 의미, 청소년인권운동의 쟁점과 양상 등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청소년인권운동 자체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정한 사건이나 장면을 포착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거나 관련된 담론을 논의한다. 가령 2008년 촛불집회와 청소년 참여자들을 연구한 이창호·정의철(2008)의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윤성이·장우영(2008)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김예란·김효실·정민우(2010)의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나효은(2020)의 「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김연주·나영정(2013)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도 여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순간들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의 변곡점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 및 매체 환경에서 청소년의 운동 참여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나 더 조직화된 청소년인권운동의 내부 상황이나 활동가들의 경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는 않다.

셋째, 청소년인권운동 주체들의 주장과 활동 양상을 탐구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 활동가들의 내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소수 있다. 이소영(2011)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의 욕망과 저항: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중심으로», 조지혜(2021)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실천 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저항, 탈주, 생성의 흐름을 중심으로」 등이다. 이소영(2011)은 “청소년 인권 운동은 청소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 역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지만, 이어서 횡단과 탈주, 자율적 실천 등의 개념을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이 기존의 사회운동과 다른 양상의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으로 그 해답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청소년인권운동 주체의 운동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는 다소 동떨어진 진단이다. 조지혜(2021)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20~30대에 “청소년인권활동을 직업으로서 어떻게 녹여내어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계와 사회적 인정 등의 문제로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전한다. 다만 이 연구는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 전반과 그 의미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10년 이상 장기간 청소년인권운동을 해 온 활동가 2명의 사례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더 많은 활동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인권운동 주체에 의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하나가 공저하기도 한 공현·뚝코(2016)의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는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작업물이다. 이 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을 했던 또는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주로 과거의 사건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과 활동가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이 단행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4권에 역시 연구자 중 공현이 집필한 청소년인권운동 역사는 본 연구의 ‘(1) 연구 대상: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격과 역사’ 부분을 정리하는 주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다만 이러한 역사 정리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의 편린이 엿보일 뿐,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한편,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이란 이슈는 청소년인권운동 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인권재단 사람 등이 펴낸 「지속가능한 인권 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한 결

과를 담고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인권활동가와 인권단체의 객관적 상황을 주로 다루고 있고, 다양한 조건과 맥락 속의 인권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전반적인 문제를 훑어보는 인상이 강하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경험과 조건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민사회운동, 공익활동으로 넓혀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에 관해 연구한 자료도 있다. 이영룡·명수민(2016)의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은 공익적 활동, 사회적 노동을 하는 청년활동가·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작이다. 이 책에서 노동과 활동, 운동을 구분하고 활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순된 가치의 충돌이나 중첩을 보여 주는 내용은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가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인권활동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노동자로서의 성격은 약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2019)이 2,660명의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활동과 삶에 대한 2019 공익활동가 이야기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공익활동가들의 건강 상태, 만족도, 노동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여건과는 차이점이 많고, 지속가능성이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2)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만 해야 하나?”

운동 지속가능성이란 단순히 정의하면 운동 또는 운동 주체들이 사라지거나 심리적·신체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은 독특한 의미와 맥락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의 구체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운동의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청소년인권운동 초기, 곧 2000년대 중반까지는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운동 자체의 지속, 조직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자 공간, 틀이 되는 조직들이 대부

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니, 청소년인권운동 자체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의 개념을 정립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진영을 형성함으로써 이 운동이 지속적 실체를 갖고 사회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와 청소년 당사자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체는 청소년이다’라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규정을 재고하며, 이러한 제한은 청소년인권운동의 발달이나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청소년이 아닌 사람, 비청소년이라도 청소년인권운동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 공유되었다.

사실 이러한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쟁 및 극복은 여타의 소수자운동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장애인운동에서 비당사자 활동가들의 경험과 위치를 탐색한 연구 중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은 청소년인권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에서는 흔히들 소수자운동과 같은 당사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운동적 방향들을 당사자 운동으로 규정하며 물리적인 당사자 여부로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세우며 구분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도 아니’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구분 짓는다. 마치 당사자만 당사자 운동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만 목소리를 내야 올바른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비당사자 활동가들의 활동이 한계지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⁷

박승하·이은정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너가 당사자가 아닌데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당사자야. 왜? 차별철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사자야.”⁸라고 하여, 자신이 차별(인권) 문제의 당사자는 아닐지 몰라도 이 운동의 당사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의 논의 역시 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려 왔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현재 청소년이 아닌 활동가는 비록 자신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청

7 박승하·이은정, 2020,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고찰」, 2020 활력향연, 16쪽.

8 박승하·이은정, 2020, 앞의 보고서, 35쪽.

소년인권운동의 주체(당사자)는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활동해 왔다. 특히 청소년은 그 특징상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으면 청소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상실하고 비청소년으로 사회적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그 때문에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비청소년의 활동을 인정하는 일은 곧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의 필요조건이 된다.

3)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며 먹고살 수 있을까?”

그러나 비청소년이 운동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 자체는 일찌감치 이루어졌음에도, 이 문제의식이 곧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운동 안에서의 역할이나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에 대한 구체적 고민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이 아니어도 또는 아니게 되어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이를 먹어 청소년이 아니게 되었다고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가 넘는 사람도 청소년인권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가령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청소년인권운동을 직업으로 계속하며 활동할 수 있는지라든지, 비청소년 활동가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준비나 훈련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열악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에 이 미비점은 한층 더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먼저 청소년인권운동단체 대부분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근자 또는 반상근자의 임금을 지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직업적 활동가의 자리 마련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런 조건 속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직 형성과 수행을 위해 일부 단체는 활동가와 회원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고, 참여 동기나 여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운동 참여자 대다수를 동등한 운동 주체로 호명하는 비체계적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 문화를 강조하고 운동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실무를 분배함으로써 사실상 전원이 ‘자원활동가’인 상황임에도 청소년인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활동가로서의 체계적 운동 진입과 훈련 과정을 포기하며, 장기적·지속적으로 활동가로

서 운동에 남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구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3세대 시기의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이 주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안정적·지속적 활동가를 만들기 위하여 각 단체에서는 반상근·상근활동가 자리를 마련하거나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수립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을까?”이다. 이는 ‘나이를 먹어도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넘어,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적 활동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4) 안정적·전문적·지속적 활동가의 자리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단지 생계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운동에서도 ‘허리’ 세대가 적다는 고민이 자주 나오곤 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이다. 활동을 시작한 지 1~3년 된 사람은 다수인데 10년 이상 한 사람이 소수이며, 그 사이는 더 적다.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에 진입하여 참여하면서 활동가로 정체화하고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활동가로 남는 사람의 비율 자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이면 3세대 시기에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장기간 해 온 활동가들이 소진감을 겪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해쳐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활동가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운동의 열악함이나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 등도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활동가가 되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나아가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이

며, 이러한 활동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인권운동 내에서는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인권운동을 만드는 일이 과제로 거론되곤 한다. 이는 주로 교수나 법률가 또는 소수의 전업활동가가 운동의 주체가 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인권운동은 다른 맥락에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가 주체를 만드는 것이 운동의 과제이다. 당사자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소수자인권운동에서는 운동 주체들이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인권운동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인권‘운동’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운동의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존재가 요구된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가 짧고 운동이 발달할수록 그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나 환경, 조직의 지원 및 교육과정 등을 연구하고 기획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활동가가 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가로 정체화하도록 돕는 과정, 운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활동가의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준비가 요청된다.

5) 연구 주제의식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전·현 활동가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이란 어떤 문제이며, 활동가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활동가로 정체화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넷째,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활동가 또는 조직이 할 수 있는 대처와 필요한 문화 및 시스템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의식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활동가들의 운동 참여와 지속가능성에서 자원과 어려움,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처와 조직적 고민을 탐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의 추가적 주제의식으로, 과거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활동가로 남지 않더라도 현재의 청소년인권운동과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어떤 관계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면담 참여자들에게 질문했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그 특징상 활동가로 남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운동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운동의 지지자나 참여자로 남도록 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함을 해결하고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3) 연구 방법 및 면담 참여자 정보

연구자들은 모두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난다는 2008년부터, 공현은 2005년부터, 피아는 2017년부터 여러 위치와 상황을 오가며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구체화하면서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문헌 조사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운동 또는 활동가의 지속성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의식에 관해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운동 주체의 경험과 고민을 녹여내기 위해 면담을 통한 질적 조사 방법을 채택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인권운동을 5년 이상 했으며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을 4년 이상 하다가 그만둔 전(前) 활동가들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활동 기간 조건은 면담 참여자가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험과 이해, 활동 지속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다. 특히 전 활동가의 경우, 청소년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운동을 더 장기적·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중단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면담 참여자는 연구자들이 후보군을 정한 후 토론을 통해 수도권 여부, 성별, 대학 진학 여부 등의 요소에서 되도록 다양성을 갖출 수 있게 선정하여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연구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면접자들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지역 또는 소속	활동 기간 및 현재 활동 여부	성별 ⁹	대학 여부	비고
활동가 A	서울	2006년 ~현재 활동 중	남	비진학	
활동가 B	경기, 서울	2014년 ~현재 활동 중	여	비진학	활동 공간, 영역 이전 고민 중
활동가 C	광주	2010년 ~현재 활동 중	여	진학	
활동가 D	인천, 서울	2014년 ~현재 활동 중	여	진학	
활동가 E	광주, 서울	2014년 ~현재 활동 중	여	비진학	좌담 형식으로 참여
활동가 F	울산, 서울	2013~2020년	남	진학	활동을 쉬는 상태로 복귀 여부 고민 중
활동가 G	전북	2011~2014년	여	진학	
활동가 H	경기, 서울	2008~2018년	여	비진학	
활동가 Y	전쟁없는세상 (평화운동/병역 거부운동)	-	남	-	인접 인권운동 활동가
활동가 Z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운동)	인권활동가로서 청소년인권운동 초 기부터 현재까지 함께해 옴	여	-	인접 인권운동 활동가

9 성별은 편의상 면담 참여자들의 법적 성별 혹은 패싱되는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면담의 공통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인권운동 시작 과정의 경험과 특징
- ② 청소년인권운동에 진입하고 활동가로 정체화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된 것
- ③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 또는 어려움을 겪은 경험
- ④ 어려움에 대처한 경험과 방법
- ⑤ 본인 또는 주변의 다른 활동가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운 점
- ⑥ 청소년인권운동이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
- ⑦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가를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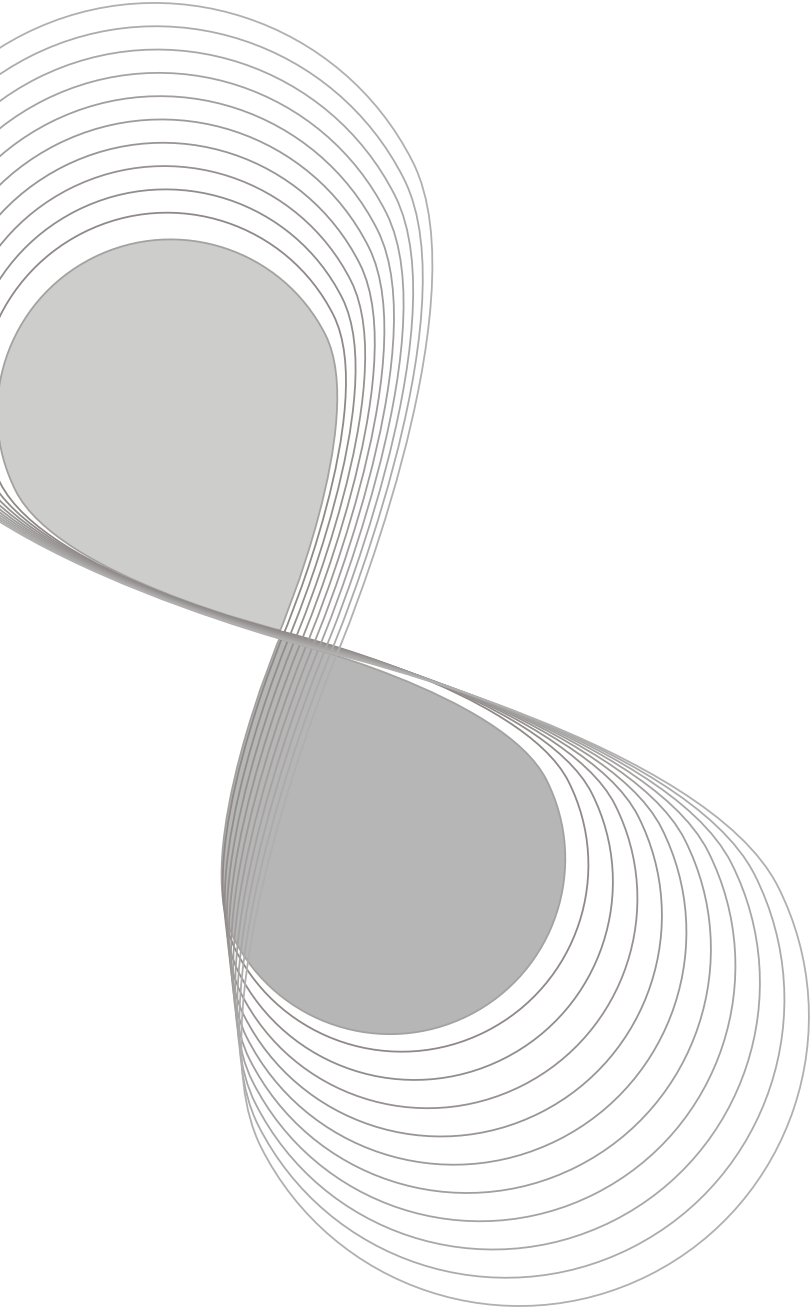
면담은 대개 면담 참여자들의 청소년인권운동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여 개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이에 관한 면담 참여자의 해석을 묻고 세부 질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진행해 나가다가 중간 점점으로, 연구자들과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면담 대상자 1인과 함께 좌담 형식으로 연구 주제를 제시해 토론하고 의견을 발전시키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랜 시간 곁에서 연대하고 지켜보거나 함께한 인접 인권운동의 활동가들을 면담하여 청소년인권운동에 관한 의견, 본인들의 인권운동에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 실천한 사례,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의견 및 조언을 들었다. 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1인당 1회씩 총 10명(전 활동가 3인, 현 활동가 5인, 인접 인권운동 활동가 2인)과 이루어졌다.

수집한 면담 자료는 전사를 거친 후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코딩(coding) 작업을 하였다. 코딩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온 경험과 의견들을 분류하고 해석하여 청소년인권운동의 특징과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 질문의 답을 모색하고자 했다.

2 부

활동가 면담을 통해 발견한 현황과 과제



(1) 어쩌다 청소년인권활동가: 운동 시작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묻는다면 저마다의 이유를 딸 것이다. 하지만 같은 운동이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큼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과 경험에는 공통점도 많다. 우리는 면담을 통해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 관한 고유한 경험과 다양한 계기 속에서도 몇 가지 패턴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가 대부분은 자신이 청소년으로서 겪는 폭력과 차별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서사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생활 중 불만스러웠던 경험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강제야자(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문제의식, “뿔가 좀 많이 싫다고 느끼고 있었던”(활동가 G) 모습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해 뜨기 전에 학교 가서 해도 못 보고 집에 돌아오는 삶”(활동가 C)에 의문을 가지며 “학교에 계속 마음을 못 붙이”(활동가 H)기도 했고,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는 교사와 학교에 반감을 품기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우선 학교의 두발 규정과, 진짜 안 이쁜 교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재수 없는 영어 교사가 (…) 그 영어 교사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서”(활동가 A)

“고등학교 생활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별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활동가 G)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교복 입기 싫어서”(활동가 F)

“시험이라든가 뭔가 그런 교육 제도나 이런 거에 좀 반감이 많았는데”(활동가 H)

연구자 중 공현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현은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인권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체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기숙사 안에 배포했고, 개인 블로그 등에 학교 규칙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일 등을 했다. 그러던 중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된 청소년인권운동의 존재는 그동안 품고 있던 불만을 구체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별난 게 아니라 현실(학교)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더 정교한 비판과 변화 요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활동가들이 느끼는 청소년의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교와 교육 제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동생이 좀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불합리함을 많이 느껴거든요. 특히 막 가족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독립 문제와 가족 문제로, 동생이랑 대화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 동생이 이런 데가 있다더라. 가봐야 되겠다.”(활동가 G)

연구자 중 피아는 청소년 때 원가정에서 부모가 가하는 폭력에서 벗어나 탈가정을 시도하던 중 활동가들을 만나 운동을 시작했다. 먼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던 다른 가족의 권유로 탈가정 직후 청소년인권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청소년인권운동을 접했다. 피아는 활동을 시작한 뒤에 자신의 가족 안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과 학교 교육, 아르바이트 등에서 겪은 경험을 활동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불편함을 인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활동가들은 인터넷이나 책,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인권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온라인 기반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대학에는 모임이나 공동체, 학생회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직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초·중·고는 다른 공

간에 비해 ‘비정치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저항적 활동을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모여 안정적으로 모임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은 물질적 기반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 그 때문에 청소년인권운동은 온라인 사이트를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래서 활동가들도 행사나 모임 등으로 바로 접촉해 조직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어떤 사람의 블로그가 뒀고 그 블로그를 타고서 들어간 데가 ○단체의 네이버 카페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입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좀 눈팅 하다가…”(A)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인권’, 딱 이게 떠올라서 네이버에 ‘인권’ 쳐 가지고 관련해서 찾아보다가”(활동가 C)

“가입해서 그냥 (웹페이지를) 눈팅만 하고 있다가 수능 끝나면 활동을 시작해야지 하고 (…)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보이고 어쩌다보니깐 그런 사람들을 팔로하게 되면서”(활동가 F)

“계속 눈팅만 하다가 고3 때, 이제 수능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모임에 가본 거였고”(활동가 H)

“그때 제가 꿈이 교사였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학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 『오늘의 교육』(교육 관련 격월간지)에 ××님이란 ××님(청소년인권활동가)이란 무슨 대답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좀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활동가 D)

운동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활동에 대한 반대와 방해, 심한 경우 탄압에까지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반대와 탄압은 물론 활동 시작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중단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여 지속한 활동가들에게 이 과정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체제의 부당함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마치 작용과 반작용처럼, 학교나 주변 비청소년들이 별 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입을 막으려 드는 모습으로부터 기존 체제의 비민주성, 반인권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자보를 붙였는데 (…) 2시간 동안 면담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왜 붙였나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무서운데, 지기는 싫는데, 화가 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활동가 B)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학교 안에서 받았는데) 사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고,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는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였고. 정말 그렇게까지 학교가 난리 날 줄은 몰랐지. (…) 서명지를 우리 반에 돌리기도 하고 다른 반에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반 애가 교사한테 걸러 가지고 이거 주동자 누구냐 해서 제가 걸렸고. 담임교사부터 학생주임, 전부 다 저를 불러서 매번 1시간 넘게 설교하고, 다리로 걸어차기도 하고, 교사들이 수업하러 들어가서 내 욕을 하고…. 나는 그냥 서명받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활동가 C)

“학생인권 배치랑 두발자유 배치,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나눠줘서 그런 걸 달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랬더니 저의 시작점이었던 영어 교사랑, 그 학생부장이었던 체육 교사가 이제 그 배치를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더 학교하고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활동에 더 깊이 있게 결합을 하게 됐고.”(활동가 A)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한 조지혜(2021)도 비슷한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다.

한 청소년 참여자는 학교에서 두발자유화를 위한 토론회 전단지를 돌리다가 학생부장 교사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고 학생회장 선배와 충돌한 일이 있었다. 함께 활동하던 그녀의 친구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체험을 “어항 속에만 살던 봉어가 어항의 유리에 처음 부딪친 느낌”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 활동을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그들의 말과 실천을 제한하는 ‘학교 제도’라는 견고한 유리벽이었다.¹⁰

청소년으로서 노동,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의 의제를 접하면서 사회 문제와 진보적 의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 B와 같은 예도 있다. 이때 청소년으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질문’을 품었던 시간이 청소년인권의 담론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가 B는 좌파적 성격의 사회운동을 먼저 접하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일상적인 하대, 보호주의적인 정서와 방식을 경험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이른테면 교복을 입고 집회에 나갔는데 누가 내 손을 잡고 갑자기 미안하다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청소년인권에 관심 갖게 만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 청소년인권 의제를 분명히 다루지 않았던 시간에도 뭔가 청소년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이런 정체성들보다...”(활동가 B)

청소년인권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즉흥적으로 단체나 모임이 꾸려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으며, 단체로서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활동가들이 단체와 처음 만날 때 어느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의 ‘활동가’가 된다는 명확한 의식 없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언어나 주제에 매력을 느끼고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참여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어떤 계기에 의해, 혹은 특별한 계기 없이 어느새인

10 조지혜(2021),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저항, 탈주, 생성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4권 2호, 163쪽.

가 활동가로 불리거나 스스로 정체화하게 된다.

“이런 운동이 있는지는 아예 모르다가 (...) 주제들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
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이 교육 제도랑 가족 안에서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
게 많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했던 거 같아요.”(활동가 G)

“약간 청소년운동을 취미로 해야지, 라는 느낌이 강했고”(활동가 A)

“여러 가지 다른 학생인권 담론을 접하면서 고민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활동가가 되어 있었던... 결국 결심한 적은 없지만 어느 순간 보니 되어 있
다, 저는 그렇습니다.”(활동가 C)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운동과 관련해 뚜렷한 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시작하고, 점점 더 고민과 관심이 생겨서 지속하다 보니 ‘어쩌다’
활동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운동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한국 사
회에서 청소년이 처한 조건과 사회·문화적 의미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조건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점이다. 이는 다른 인권운동과 차별화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시기, 10대에서 20대로 막 넘어가는 시기는 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이다. 경쟁적인 교육 체제나 이중화, 서열화된 직업
세계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는 치열하게 자기 개발과 공부, 진로 탐
색을 해야 하는 시기로 여겨지는 경향이 크다. 이런 조건에서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 준비나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는 ‘탈주자’가 되면서 불안을 느끼기 쉽다.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 활동가가 10대 이후 삶의 경로나 형태가 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앞으로도 활동가로 살아갈지 여부를 뒤늦게 고민하게 된다. 20대 초까지는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고자 한 활동가들이 이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사정이 변화하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청소년기에 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조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나 의사 결정 과정, 조직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생활은 주로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의견을 발표하거나 자기를 표현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모의’ 행사이거나 ‘대회’, ‘경연’ 등 학습이나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작은 업장이나 기업의 말단에서 주어지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할 때가 많다. 이런 사정상 활동가 대부분은 스스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실무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경험을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처음 해 보게 된다. 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고 해 낸다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긍정적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버겁게 느끼거나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운동 참여의 자원과 어려움에서 살펴보겠다.

(2) 계속하는 마음: 운동 참여와 활동가 정체화 과정의 동기와 자원

우리가 면접으로 만난 활동가들은 대개 10대 중후반 나이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의 경우는 20대 중후반인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운동을 그만둔 활동가들의 경우는 대개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활동을 시작하여 20대 중후반에 그만두었다. 연구자 중 난다는 10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해 20대 중반에 3년 정도 다른 단체에서 활동했다가 20대 후반에 다시 청소년인권운동으로 복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활동가들이 운동에 참여하고 활동가로서 운동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된 동기와 자원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향에 대한 동의와 공감

청소년인권운동은 두발·용의복장 규제, 야간자율학습 강요, 체벌, 휴대전화 및 소지품 압수 등 주로 학생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또한 나이주의, 능력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경쟁교육의 개혁과 차별금지 등을 요구했고,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라는 담론을 발전시켜 왔다.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일들이 불편하고 싫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에서, 활동가들은 운동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이런 것은 인권침해이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연구자 중 난다는 고등학교에 다니다 처음 학생인권 집회에 참여한 날을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강렬했던 하루”로 기억한다. 다른 활동가들 역시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이나 문제의식에 매력을 느껴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의) 관점들이 되게 진짜 센세이션했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고. 이제 뭐 교육 제도가 사람들을 되게 획일화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도 좀 배신감, 반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또 좀 다른 차원이었다고 해야 되나? (…)(청소년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 라는 개념도 너무… 이런 걸 말해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공감해서 했던 게 제일 큰 것 같다.”(활동가 B)

“이제 입시가 문제다, 해 뜨기 전에 학교 가서 해도 못 보고 집에 돌아오는, 해가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글도 보고, ‘아, 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하고.”(활동가 C)

어떤 활동가들은 운동에 참여하기 이전에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교육 제도의 문제와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 이런 경우, 청소년인권운동을 통해서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쉽게 구체화하고 정치적·적극적 실천으로 이행하게 된다. 연구자 중 공현도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회운동이나 진보적 사상, 인권 등을 공부하면서 학교 규칙과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하면서 빠른 속도로 청소년인권의 주장과 가치 지향을 흡수했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차별과 폭력, 경쟁 압박 등으로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말하며 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언어를 제공한다. 나아가 사회와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청소년인권의 문제의식과 주장은 보편적 자유와 평등한 존엄, 인권과 민주주의, 해방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모든 인권운동이 그러하듯,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동의의 기반과 청소년인권운동이 지향하는 사회와 삶의 모습이 더 올바르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공감은 활동가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첫 번째 조건이자 이유로 꼽힌다.

“저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다 좋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관심사가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고, 뭐 그런 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었던 거 같아요.”(활동가 F)

청소년인권운동이 담고 있는 가치는 활동가들이 더 폭넓게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자 언어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인권 관련 이슈 외에도 노동 문제나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되는 활동가도 적지 않다. 운동의 경험은 활동가의 세계관과 인생관 전반을 재구성하고, 이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빠져드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언어가 사회 전반을 해석할 도구가 되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사회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지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뭔가 계급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박세게 했던 것 같아요. (...)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인권 문제랑 사회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 분노 마일리지 그 시점쯤에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막 국회에서 헛소리하는 것도 듣고, 하도 사회 이슈가 많아 가지고.”(활동가 A)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동의와 공감은 활동가들에게 구체적인 자원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양상은 ‘자기 긍정’이다. 활동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탄압에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활동가 C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지지 서명운동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고립을 경험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난 후, 동급생이었던 친구에게 이해와 지지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나중에 돼서야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졸업하고 나서 만났을 때, ‘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역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되지 않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뒤늦게라도 들은 이해의 말 덕분에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도 있었다고.”(활동가 C)

기존의 체제나 주류 가치관과 갈등하며 받은 상처를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위안받고 자신의 느낌과 가치관을 긍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활동가도 있다.

“나를 긍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내가 힘든 거, 그렇게 생각했던 거,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헛소리였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약간 다 같이 증명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자체로 많이 위안을 얻고.”(활동가 G)

연구자 중 피아 역시 원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을 겪으면서도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또 같은 가치와 지향에 공감하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또는 공식적인 문헌이나 활동가들의 논리적 주장을 접하면서 운동에 진입한 활동가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힘은 운동을 계속하는 자원이 된다.

2) 운동이 주는 해방감, 생동감, 성취감

청소년인권운동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의 동기이든,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이든 공통적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운동에서 느끼는 재미였다. 물론 사람마다 무언가에 더 끌리고 재미를 느끼는지 그 요소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면담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공통된 열쇳말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틀을 벗어나는 것, 세상을 바꾼다는 유능감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감각,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고유한 존재로 자신을 발견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운동이 주는 자유로움과 이전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생소한 활동을 해보는 경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는 생동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내며 느끼는 성취감 등의 ‘재미’가 운동을 계속하는 마음의 주된 힘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수능 끝나면 뭔가 해야지 했었는데, 그 해방돼서 처음 발 들인 공간이 운동이었던 거죠. 뭔가 이제 못 해 봤던 걸 최악 해보는, 팡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 회의 가는 게 그렇게 설렘거든요. 회의 가고, 활동에 가고, 캠페인에 가는 길이 집을 나설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활동가 F)

“캠페인이었나 뭔가 끝나고, 근데 다 돈이 엄청나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10명 이서 스파게티 2개 시켰어요. (...) 그게 약간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불량 청소년 모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활동가 D)

“어른들이 반말하면 반말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뭔가 우리끼리 별명을 쓴다거나. 이런 문화가 있더니, 하면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활동가 G)

활동가들에게 운동은 학교와 가정의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다. 불합리한 규율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도 재미와 매력의 요인이다. 활동가들은 나이에 따른 차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인권운동은 나이주의적 사회를 바꾸려 한다. 이러한 운동의 지향은 자연스럽게 활동가 사이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하거나 상호 동의가 있을 때만 서로 반말을 하고, 선배·후배·언니·형 등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기존 주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청소년인권운동만의 독특한 감수성으로 만들어진 문화는 ‘학교와 어른들의 권위’에 저항감을 갖고 있던 활동가들에게 해방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운동 자체의 특성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한다. 활동가들은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보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여러 사람과 무언가를 이뤄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전혀 청소년과 관련 없는 그런 기분들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전까지는 맨날 모범생이 돼야 했고… 그런 거에 엄청 시달리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났던 게 자유롭게 느껴졌던 거 같기도 해요. (…) 저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던 힘이 그냥 뭔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되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숙제하고, 선생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게 되게 저한테 좋았고.”(활동가 D)

“우리끼리 막 회의에서 아이디어 내고 새로운 거 해보고, 이런 걸 어디서… 아무 데서도 못하잖아요. 뭔가 기획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활동가 G)

“상상하고, 상상한 걸 같이 만들어 보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일 자체가 재미있었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룬다는 성취감이 좋았고. 그거 자체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 하고 싶은 거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다른 사람 돈 벌어주는 것보다.”(활동가 A)

연구자 중 공현도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동기 중 으뜸으로 재미를 꼽는다. 그 재미란 무언가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전하는 재미이다. 공현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위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실천하는 일이 생동감을 준다고 평가한다. 또한 청소년인권운동은 비록 제대로 성공할 때가 적긴 하지만, 운동의 과정에서는 활동가들에게 충분히 성취감을 준다. 우선 운동이란 단지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차원적 재미’를 경험하게 한다. 게다가 청소년인권운동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고 작은 성과라도 이루어 갈 여지가 크다. 인권활동가로서 청소년인권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활동가 Z도 청소년인권운동의 비슷한 매력을 이야기했다.

“아무도 안 하는 얘기 내가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무도 못 보는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잖아.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하는 우리들의 존재 이유? 고유한 존재를 말해주는 게 있잖아. (...) 새로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나이주의나 능력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도 얘기하기 편하잖아. 환영, 당신의 얘기를 기다려요,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다? 내 얘기를 이렇게 막 우왕좌왕 얼기설기 꺼내 놔도 그게 막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경험. 그런 것들이 이 운동의 굉장히 큰 매력 아닌가?”(활동가 G)

조지혜(2021)의 연구 중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 자체는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 사회나 세상이나 우리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뭔가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 유능감? 어쨌든 (웃음).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¹¹

조지혜(2021)는 이러한 ‘고유한 존재’, ‘살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경험을 아렌트의 ‘탄생성’과 ‘행위 능력’의 개념으로 해설한다.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세계 속에 태어난 자로서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실천이 “나다운 삶의 모습과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실존적 여정으로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인권운동의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느낀 재미가 인간 존재로서의 본질적 충족감이나 자아실현, 정치적 효능감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 준다.

11 조지혜(2021), 앞의 논문, 175쪽.

12 조지혜(2021), 앞의 논문, 177, 184쪽. 그 밖에 논문 전반에서 행위자성과 행위 능력, 탄생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석하고 있다.

3) 함께하는 관계와 친밀감, 공동체성, 소속감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맺은 관계의 힘은 그 자체가 운동을 지속하는 주된 자원이다. 많은 청소년에게 학교와 집이 아닌 공간이나 입시 공부 외의 시간이 쉽게 허락되지 않다 보니, 청소년기에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넓은 관계망을 가지기 어렵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동료 관계를 가지는 경험이 흔치 않다. 활동가들은 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관계망과는 성격과 범위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좀 뻘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그때 나한테 되게 강렬하고 그냥 뭔가 엄청 엔도르핀이 확 올라왔었던 느낌이 들고. 가장 힘이 됐던 게 뭐냐고 하면 같이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 그 순간순간의 느낌들…. 그냥 애네랑 같이 있는 게 재밌고 즐겁고 좋아, 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냥 처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잖아. 그리고 그게 되게 의식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그 시간이 그냥 좋아서 그냥 갔다’밖에 없어. (…) 정말 생소한 경험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게 진짜 모든 걸 압도했던 것 같아요.”(활동가 H)

연구자 중 피아는 활동을 시작한 단체에서 수년간 운영했던 공동 주거 프로젝트 사업으로 만든 집에 여러 활동가와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다. 그때 ‘나를 받아주는 있는 곳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크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청소년인권운동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탈가정 이후 여러 거처를 불안정하게 옮겨 다니던 중 ‘집 나온 청소년을 죄인 취급하는 곳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피아에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탈가정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받아들여진 경험은 피아가 지금까지도 활동을 지속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담은 활동가 중 적어도 일부는 운동 안에서 함께 삶을 꾸려가는 공동체적 성격, 친밀감과 애정에 의한 네트워크를 경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청소년인권운동에서 관계가 힘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형태 외에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활동하다가 힘들어서) 빠치는 순간들을 이겨내게 했던 건, 하소연할 수 있는 좀 괜찮

은 사람들이 주변에 좀 적지만 있었고.”(활동가 A)

“내가 이렇게 그 시기를 관통했을 때 뭔가 온전했던 느낌들. 내가 그때 외롭지 않았던 느낌들. 뭔가 가족도 아니고 학교 친구들이랑 또 다르게 일체화된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 해야 하지, 목표나 혹은 뭔가 신념 이런 걸 공유하면서 거의 진짜 물리적인 시간의 상당수를 같이 보내고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들을 해내고. (...) 그치. 그 관계성이 제일 크지. 힘이 됐던 거예요.”(활동가 H)

“같이 계속 해 나가는 동료들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매주 회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 총회 같은 거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도 좋고. 아무튼 너무 새롭고 이렇게 소속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활동가 G)

관계성이란 활동가 A의 말처럼 힘든 순간 서로 의지하고 하소연을 들어주는 신뢰를 의미할 수도 있고, 활동가 H의 말처럼 목표나 신념을 공유하며 같이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동료 의식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며, 활동가 G의 말처럼 커다란 흐름이나 집단 속에 있다는 소속감이나 연대감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과 인간관계는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물질적·심리적·사회적 자원이다. 비슷한 뜻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힘이 된다.

4) 운동의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의미

활동가는 운동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운동은 활동가에게 언어를 제공한다. 그 언어는 세상과 맞설 때 뒷받침해 주는 대항 논리가 되며,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공부하고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며 만들어 가는 즐거움을 준다. 운동을 통해 세계와 삶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얻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활동가들이 운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확산하는 과정들? 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아니면 아예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계 주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 (...) 부모님이란 뒤지게 싸우고 그럴 때도 할 말이 있잖아. 논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 좋았지.”(활동가 G)

“@단체(청소년인권운동을 연구, 공부하던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2017년엔가에 세미나 한 적 있잖아요. 청소년인권 가지고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좋았던 거 같아요. (...) 제가 예전에 항상 사람들이 너 왜 활동해 물어보면 그 @단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 청소년인권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어떤 문제다. (...) 뭔가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서, 난 이걸 계속 공부해 보고 싶어서 활동해, 라고 했었는데.”(활동가 D)

청소년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 연구하는 것은 활동가들이 운동을 시작한 근본적 이유인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동의와 공감을 발전시키고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청소년기에 시작한 활동가들은 나이를 먹으며 운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조직적으로 혹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청소년인권이나 관련된 담론 혹은 사회운동에 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은 오랫동안 청소년인권운동을 한 활동가들에게는 공통되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처럼 운동의 언어와 담론을 수용하고 자기화하는 것은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기간 운동을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다.

이때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언어의 원천은 반드시 청소년인권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인권 일반에 대한 연구로부터, 누군가는 페미니즘 등으로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이 운동을 지속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활동가 C는 ‘청소년 당사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청소년인권 문제가 어떻게 비청소년인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애운동의 담론을 접했고, 이를 청소년인권운동에 적용하며 자신이 운동을 계속하는 자원으로 삼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왜 흔히 청소년인권운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비청소년이 돼서 이제 당사자성을 잃고서 떠난 경우가 많잖아요. (...) 비청소년 때 (청소년인권운동을 할) 이유를 좀 많이 찾기 시작했던. 근데 그 당시에 (장애학과 장애운동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비장애인의 장애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사람은 모두 장애인일 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을 만드는 건 어쨌든 비장애인 중심성’이라고... 중심과 주변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해 주면서. 그러니까 청소년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좀 비청소년인 나의 문제로 끌고 올 수 있어 가지고 좀 계속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뭐라 해야 되지. 중심이 주변을 만들고 주변 역시 중심을 만드는 건데, 비청소년으로서 내가 청소년 차별과 배제에 좀 공모하고 있다, 거기에서 고민을 하면서 비청소년의 청소년인권운동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고. (...)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운동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제 비청소년 중심의 질서 속에서 가려진 거 아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좀 힘이 됐던 거 같아요.”(활동가 C)

5) 운동에 대한 아쉬움과 의지, 책임감

청소년기, 10대 중후반에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은 운동 시작 후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이 지나고 나면 나이를 먹고 비청소년이 된다. 청소년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작 청소년일 때는 학교, 집, 경제적 여건 등의 한계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활동가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커서 오히려 이후 더 의욕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운동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느끼고 좀더 오랫동안 계속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고3 때는 사실 너무 제약이 많아서 제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맨날 카톡방에서만 얘기하고 항상 아쉬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몇 시에 뭐 행사도 가고 회의도 가고 그러는데 나는 학교 때문에 못 가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어쨌든 무조건 스무 살 이후에도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그때쯤에 제가 활동에 꽂혀 가지고 막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

는 대로 일을 막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상근활동가가 되어야겠다. (...) 스무 살 이후에도 활동을 해야겠다는 거는 확실히 그 아쉬움이 컸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뭔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좀 어찌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나의 직업으로 가져가야겠다.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여기의 뭔가 환경이라거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나랑 잘 맞으니까.”(활동가 D)

운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은 운동의 열악함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몇몇 활동가가 청소년인권운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많은 운동이 그러하듯 청소년인권운동의 숙제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고자 수년간 노력한 문제를 아직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에서는 운동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을 함께 엿볼 수 있었다.

“운동의 중심이라는 게 저한테 늘 청소년인권운동의 정체성으로 있었고 그건 제가 있는 공간에서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청년운동이었으면 ‘난 페미니스트’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죠. (...) 제가 속해 있는 공간에 저 말고 주력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것이 저의 운동이 된 것이죠. (...) 그냥 이 부문은 내가 계속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는 욕심이 들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제는 조금 더 전적인 공감을 받고 다 같이 하는 의제 느낌들이 있다면, 이 의제는 좀 더 부문 의제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던 거 같아요.”(활동가 B)

“이런 청소년인권운동이 어쨌든 필요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사람들, 이걸 위한 기반이나 제도를 만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러니까 보통 10대 넘으면은 많이들 이제 그만두잖아요. 근데 20대가 돼도 여전히 그 미션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청소년인권운동에 함께하고. 어쨌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 안 끝났다는 느낌이….”(활동가 A)

연구자 중 공현은 10대 때 두발 자유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뛰어들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시작할 때는 두발 규제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기에 길어도 10년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뒤 16년이 지났지만 아직 두발 자유화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공현은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두기 전에 적어도 두발 자유화 하나는 꼭 이루고 말겠다는 ‘오기’가 있다고 얘기하곤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운동을 제대로 못한(또는 성과를 만족할 만큼 내지 못한) 아쉬움이나, ‘내가 할 수 밖에 없는’ 느낌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그만큼의 애정과 강한 동의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자신이 운동을 떠나게 되면 이 운동을 책임지거나 꾸려 나갈 사람이 없을 것만 같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인권운동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근간에 있는 동기이자 자원이다.

(3) 그만하는 마음: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활동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리고 활동을 그만둔 활동가들의 중단 이유가 우리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앞서 살펴본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와 자원이 있음에도, 활동가 중 5년 이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청소년인권운동 지속의 자원이 제대로 제공되고 작동하지 못하거나 이를 압도하는 중단 이유,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면담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크게 이들 요소를 청소년인권운동 초기에 활동가 정체성을 얻고 활동 지속을 결정하기까지의 문제, 활동가로서 지속을 결정한 뒤 마주하게 되는 문제, 마지막으로 사회 일반의 상황에 따라 겪게 되는 문제로 분류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개개인에 따라서 같은 어려움을 다른 시기에 겪게 될 수도 있기에 이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운동의 열악한 상황과 반복되는 실패는 초기에 운동에 진입하고 활동가로 정체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문제이지만, 장시간 활동해 온 활동가 역시 동일한 요인으로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를 시기별, 영역별로 엄밀히 구분하기 보다는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읽어내려 가면서 활동가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마음, 운동을 중단하고 싶어지는 고비를 확인하려 한다.

1) 활동가 정체화의 어려움

청소년인권운동의 시작 단계를 분석한 부분에서 정리했듯, 활동가 중 대부분은 이 운동이나 활동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결의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다. 청소년으로서 경험한 인권침해와 이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예

가 많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이를 위해 자신이 사회운동의 활동가가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운동 초기 과정에서 실제로 운동을 겪으면서 자신을 활동가라 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고 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 운동 특성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첫째, 청소년으로서 시작하게 될 경우가 많잖아. 근데 청소년일 때 사실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뭘 해야지’라고 결심하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약간 1년 단위로 뭔가 확확 변하는 느낌. 앞으로도 장래에 뭘 할 건지 진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뭔가 공부도 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고.”(활동가 E)

“처음 신입 활동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주된 유입이 온라인이라 더더욱, 시 작은 가벼운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이런 데 갈 때처럼, 사람 만나러 막연하게 재미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온다든지. (...) 한편으론 좀 자백인 사람들이? 10대 때부터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어떤 느낌에 취해서 온 것 같은 이들도 있고. 전부 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활동할 때 만났던 사람들 떠올려 보면 그런 느낌도 몇 명 있었다는 거. 아무튼 그 정도의, 이 정도 동기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시작했는데, 활동이 의외로 박세잖아. 온종일 회의만 하기도 하고, 이제 모임을 겨우 두 번째 왔는데 갑자기 명동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래. 처음 보는 청소년들한테 일제고사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 일들의 성격도 쉽지 않고. 실제로는 가볍게 즐기기도 어렵고,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뭔가 모임을 올 때 가지고 왔던 기대가 미끄러진다고 해야 하나. (...) 게다가 신입 활동가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소위 사회 초년생보다도 훨씬 전의, 뭐 그니까 전전? 단계인 거잖아. 매일 학교, 집, 학원 정도 돌면서 일상생활에서 공부랑 상관없는 뭔가 다른 일을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 생활을 하다가 온 건데. 갓 시작 단계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치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지. 기자회견이니 집회 준비니. 그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속으로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투여해야 하는

시간도, 에너지 총량도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활동가 H)

“최근에 ㉠단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 이를테면 ‘활동가가 된다’, ‘그렇지 않는다’. (….) 저도 그 (활동가란 무엇인가의) 예시가 되어줄 수 없고, 다른 청소년 동료들도 그 예시가 되어줄 수 없고. (….) 그래서 ㉠단체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실 활동가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활동가 B)

연구자 중 난다는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집회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인권운동을 처음 접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난다는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단체의 운영에 관해서도 다양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난다가 스스로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된 것은 활동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이처럼 운동 참여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경우가 활동가 중 대부분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한다.

청소년기에 운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거나 책임지는 역할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은 더더욱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첫 조직적 활동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한 이들 중 상당수는 운동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거나 대안적 세력으로서 운동 주체들에 과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운동은 열악한 조건에 고되고 힘든 실무와 일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은 일상과 다른 해방감, 생동감, 성취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반대로 활동의 책임을 감당할 내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활동가 H는 이를 처음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기대가 미끄러지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운동의 문화나 방법론에 적응하거나 운동의 언어와 주장을 익히는 것, 활동에서 요구되는 실무를 해내는 것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여러 활동가에게서 나왔다.

“이전부터 그 단체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규칙이라든지 체계, 뭔가 질서라는 게 있었잖아. 어느 정도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내가 한번 좀 동의할 수 없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총회 때였는데… 조직화 얘기, 뭔가 ‘다른 회원들을 조직화해야 된다, 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에서 내가 한번, 그냥 나는 되게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런 언어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는 생각이 안 맞는다고 느꼈던 거야. 그거는 그 이전부터 집회 가거나 할 때도 뭔가, 기존 운동권들이 해오던 운동방식 있잖아. (….) 그거 난 좀 약간 부대길 때가 많았다?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해도 너무 싫더라고.”(활동가 H)

“일을 벌였어,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맡아갈 거냐,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가 맨날 안 했지, 회의 때 와가지고 안 했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일 분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때. (….) 뭔가 얘기를 할 때 지적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지적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고. (….) 뭔가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대화로 소통이 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책임과 옳음으로 다 가려다 보니까 그것 사이에서 약간 지쳐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많았을 것 같고….”(활동가 G)

“회의에서 나눠 맡는 일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레벨이 좀 높았어. 회의 코디가 ‘이 일은 누가 할래?’ 물어보잖아. 그럴 때 선뜻 내가 하겠다기에는 자신 없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어디 뭐, 집회에 발언자로 간다든지, 개별 팀 모임에서 회의를, 회의 진행을 한다든지, 특정 사안에 뭐, 연대 회의 담당자로 간다든지 등등…. 이미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리드하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했던 거지, 여기서 해내는 일들의, 그런 뭔가 프로세스나 용어들 같은 게 생소하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았고. (….)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 주축 멤버들 다 빠지고 나보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나? 나는 못 할 것 같았어. (….) 활동하면서 갖춰야 하는 여러 역량들에 대한 부담감, 자신 없는 느낌이 늘 있었던 것 같아.”(활동가 H)

여기에 청소년인권운동이 단계적인 운동 진입 과정과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활동가 역할과 실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았던 탓이 크다. 물론 다른 사회운동에서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활동가로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곤란을 느끼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인권활동가의 활동 조건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다만 청소년인권운동의 경우에는 활동가들이 청소년으로서 갖고 있는 경험과 사회적 위치도 작용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청소년기에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들은 조직에서의 노동, 실무 경험이 적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더욱이 활동가 역할 수행이나 실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내가 청소년이라서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와 위축으로 연결되곤 한다. 비슷한 문제를 겪더라도 소수자로서 경험과 위치 때문에 더 부정적 해석을 내리고 활동가 정체화에 장벽이 될 위험이 더 큰 것이다. 활동가 H는 이후에 다른 조직이나 기업 등에서 일해 본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활동가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 이유에 대해 자신이 그때 처음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해본 것이었고 자신감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운동 안에서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혼자만의 혼란으로 품고 가면서 활동가로 스스로를 생각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활동가 정체화가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 초기만이 아니라 청소년인권운동 지속 과정에도 작용한다. 활동가 대부분은 청소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인권 침해 문제, 차별·폭력 등에 대한 반감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후 나이를 먹으면서 청소년이 아니게 되고 초기의 동기가 희미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 문제의 당사자'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운동 지속이 가능해지는데,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자신의 현재 삶에 관련된 다른 문제로 관심사가 이동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듯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서 벗어날수록 그게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이유나 마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면서. (...) 동기가 조금씩 열어지는 거.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이어가게 되는 것이 좀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

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좌담 중 연구자 피아)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여길 거쳐서 떠나가고, 거쳐서 떠나고, 거쳐서 떠나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저랑 나이 차이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건가?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나 혼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고.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점점 차이가 커진다’라는 생각? 청소년 당사자와의 나이 차이가 되게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컸던 거 같아요. 청소년 당사자와 나이 차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점점 더 내가 청소년 당사자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활동가 F)

“나도 이제 그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다른 문제들, 다른 사회 문제 같은 거에 관심 갖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모임 자체가 좀 멀어지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 사실 이게 계속 만나서 막 뭐라도 얘기하고 일상에서 겪는 거라든지 뭔가… 자꾸 에피소드가 있으면 뭔가 고민해 보고 이런 게 계속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지고 관심사가 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은 느낌?”(활동가 G)

활동가 G의 사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나이를 먹으며 운동에서 멀어지는 과정, 그리고 소수의 활동가로 이루어진 조직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보여 준다. 활동가 G는 20세 무렵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대 때 자신의 경험이 큰 동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첫 사회운동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좌파적 대학생운동 조직에도 가입하여 학습과 활동을 했고, 이후 페미니즘을 접하고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의 언어에 매력을 느껴 페미니즘 활동을 주로 하고 참여 학생회 회장직도 맡았다. 그러면서 대학 생활 후기에는 점점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활동하던 단체의 지부 역시 활동가 G를 비롯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은 운동 참여와 활동가로의 정체성 형성 사이에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는 활동가의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자신이 이 운동의 활동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운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청소년이 아니게 된 이후에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

2) 운동의 열악한 상황, 반복되는 실패

청소년인권운동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활동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어긋나는 현실에 미끄러지게 되는 배경에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한 상황이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작은 규모와 부족한 재정, 지지 기반 및 인력은 청소년인권운동이 택할 수 있는 활동 방식을 크게 제한한다. 열악한 조건의 운동은 운동 주체들의 다양한 적성이나 역량,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당장의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게 된다.

“나는 필요한 건 체계적인 교육과 뭔가 책임지는 경험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임지는 경험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약간 되게 별로 안전망 없이 그냥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해온 거 같은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야. 여기 되게’ 뭐랄까, ‘허접하네’.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 하면서 원망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 아무튼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케어? 약간 그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책임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활동가 E)

“해내야 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고, 그리고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활동이라는 걸로 규정해서 뭔가 해내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필요한 역량들이 정해져 있었고 (...) 각자 ‘내가 어쨌든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감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기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나.”(활동가 H)

“다른 활동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마땅치 않은 것이지 싶은 것 같아요. (...)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배우고 하는 거지. 물론 그 외의 방식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뭔가 맞아떨어지게 활동을 배우는 것 같지가 않다. (...) 활동이 중간에 맥이 끊긴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누구 표현대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처음부터 일을 배워 나가야 되는. 일을 배우고 활동을 배우고 고민을 해야 되는 막막함? (...)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호소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막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활동가 F)

운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활동을 기획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학습 및 훈련의 과정 그리고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에는 체계적 과정과 조직적 지원도 빈약하고, 운동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의 수준을 탐색하고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의미 공유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을 해 나갈 때 활동가들은 ‘막막함’을 느끼기 쉽다. 이와 같이 운동의 열악한 조건은 청소년인권운동에 진입한 초기의 사람들이 운동에 오래 남지 못하고 단기간만 참여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요인이다.

“약간 못 견디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일을, 책임을 내가 한다 했는데, 안 져서. 그럴 상황에서 뭔가 약간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잖아. 지적을 하든, 문제 제기를 하든 할 수 있는데. (...) 시간 여유가 있거나 분위기가 그랬으면 뭔가 얘기를 좀 더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되게 책임감... 일 분배나 표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 ××(같은 활동가)랑 나랑 내 동생은 그게 됐어. 그거를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잘 받고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활동가 G)

“청소년운동만 그런 건 아니지만 청소년운동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단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지아. (…) 청소년 활동가들 중에서도 좀 오래 남아서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가족 자원이든 뭐든 일종의 다른 자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남았다, 살아남았다는 생각도 들어. (…) 청소년운동 판에서 능력 자원을 어쨌든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들, 활동의 자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일종의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도 많이 초청되기도 하고, 청소년운동을 대표해서 발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너무 좀 몇 사람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 나는 이게 청소년운동에서 제일 허약한 부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활동가 Z)

인권단체의 상임활동가로서 청소년인권운동에 오랫동안 함께해 온 활동가 Z는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든, 아니면 운동을 지지하는(최소한 강하게 반대, 저지하지는 않는) 가족 배경이나 경제력이든 일정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실임을 지적했다. 좌담 당시 연구자 중 공현 역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개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신 건강 등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그만큼 운동적·조직적 자원이 없기에 개개인의 여건과 자원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의미이다.

운동에서 일을 책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고 못 견뎌낸 사람들은 떠났던 것 같다는 활동가 G의 회고는, 사람과 돈이 적은 상황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C는 운동을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단체 내에서 간단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도 개인 간의 관계 문제 등 사적 요인을 제외하면, ‘운동을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활동가를 ‘값아먹는’ 이유로 꼽혔다고 이야기한다.

“떠나간 사람은 왜 떠나갔는지, 남아 있는 사람은 왜 남아 있는지, 활동을 값아먹는 요소가 뭔지,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개인 사정, 학업이나, 약간 ‘기타’ 느낌이

제일 많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다음으로 좀 있었던 게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러니까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운동을 혼자서 개척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잡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그 다음이 활동가들 간의 갈등”(활동가 C)

이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은, 청소년인권운동에선 사람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수가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을 기획하고 실무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빈번함을 반영하고 있다.

운동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트러블은 면담 참여자들을 비롯해 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운동에서 갈등을 겪거나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째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갈등이 운동의 지속 여부에 크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물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로 잘 맞지 않거나 감정적 충돌이 생겼을 때 적절히 거리를 두거나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에도 운동의 열악한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인 건데. 환경이 열악한 거? 세 번째는 관계인데. 이게 2번(경제적인 부분)이랑 너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예컨대 사무실에서 좀 불편한 멤버가 있는데,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뭐…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룰 텐데. 특히 뭔가 저처럼 뭔가 관계에 되게 민감한 사람한테는 뭔가 이 관계가 파탄 나가거나 싸우게 되면 너무 좁은 공간에서, 뭐라고 그러지…? 있기가 어려워서 뭔가 싸울 수 없게 된다? 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열악한 환경이 요소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좌담 중 연구자 피아)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 갈등 이런 게 항상 사람들끼리 이제 있는 건데. 근데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청소년인권활동을 하려고 모인 건데 좀 서로 친한 거나 감정, 감정은 부차적이지 않나…: 그니까 활동가로 정체성을, 정체화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사람이 적다 보니, 없다 보니까 그런 좀 갈등이 있어도 피하거나, 팀을 옮기거나 피한다거나 그런 선택지도 없는 거 같고, 하나하나 관계가 굉장히 너무 좁, 큰일, 큰 문제로 느껴지고. 사실 갈등이 많이 일어난, 커지는 원인 중에도 자세히

보면 힘든 활동 상황, 돈이 없거나 일이, 맡은 게 너무 많거나 이런, 뭐 이런 거가 있을 거라는.”(좌담 중 연구자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실패는 장기간 활동해 온 활동가들 역시 번아웃시키고 운동 지속을 고민하게 만든다. 면담 참여자들 중 다수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잘 안 됐을 때, 꾸러가던 조직이 ‘망했을 때’ 운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이는 특히 비수도권에서 소수로 활동해 본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하강기? 그러니까 좀 광주지부 소멸 직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을 때. (…) 나는 그냥 동료와 함께 운동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없고) (…) 그러니까 청소년운동이 한 줌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비수도권은 더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야 좀 운동이 이어질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소진감이 너무 심했죠.”(활동가 C)

“울산지부는 연속 3번 망할 거 같고, 또 망할 거 같고, 연속했던 게 컸어요. 사람이 1명 들어와서 다시 해보자 하다가, 나가면 다시 ‘없어지나?’ 했다가, 또 1명 들어와다가 나가면 ‘없어지나?’ 그게 2년 사이에 3번 있었거든요. 아, 진짜 못할 짓이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로 남았던 것 같아요. 후회? 아쉬움과 후회? 그러면서 내가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활동가 F)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함은 이처럼 운동에 들어온 사람 중 소수만 운동에 남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운동의 열악함이 다시 활동가가 늘어나기 힘든 이유가 되고, 활동가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운동의 열악함이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다.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 초기의 사람들이 활동에 더 깊숙하게 참여하거나 활동가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강고한 조건이며, 수년 이상 활동해 온 활동가들의 번아웃을 불러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3) 동료의 부족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청소년인권운동을 일정 이상 한 활동가들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부담감’ 또는 ‘과중한 책임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활동가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이유나 계기가 되는 부담감의 정체는 조직 안에서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채로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버겁다는 것이기도 했고, 활동 경험이 쌓이고 식견이 늘어가면서 뭔가 더 많은 활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책임감이기도 했으며, 청소년인권 이슈에 관해 해당 단체에 주어지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이 지부를 끌어 달라. 이런 요청을 자주 받아 가지고, (...) 내가 이 운동을 이끌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시간 일부만 쏟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쏟아야 하는, 좀 그런 역할들을 요청받아서 단체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활동가 C)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무게감이 적었다고 해야 하나. 열심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오히려 활동 후반으로 갈수록 (...) 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지를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은 느낌. (...) 점점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발언이나 혹은 회의에서의 결정들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무거우니까 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충돌이 점점 더... (...)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활동에, 내 욕심에, 내 기대에 내 스스로의 기대에 맞추려면 내가 스스로 요구하는 활동량이 늘어갔던 거죠. 이게 점점 커진 느낌? 그래서 막판에는 ‘활동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활동가 F)

“너무 많은 걸 다 해야 되고, 일단은 너무 많은 걸 다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더 발전적으로 뭘 해보자 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죠. 제가 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단체를 유지하는 데만도 조금 힘이 다 뻥찔기도 하고. (...) 이럴테면 ©단체 창립총회를 하는 날에는, 그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나 무서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쿨미투 이후에 소진

감들이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음, 뭔가 많은 걸 하고 싶는데 이제 몸에 한계들이 있음, 혹은 이제 뭔가 어떤 무한한, 무한히 연장되는 책임감과 이런 것들.”(활동가 B)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거나 전일적으로 활동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열악한 운동의 조건상 활동가들은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중첩해서 감당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 배경에는 청소년인권 이슈가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관심도에 비해 실제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주체들과 운동의 자원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활동가 B가 말한 ‘단체 창립을 하고 나서 무서웠던 느낌’은 스쿨미투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리 크지 않은 단체가 또는 자신이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실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활동가로서 정체화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과 맞물려 이러한 부담감은 조직 안에서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의지하고 같이 책임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 없거나 너무 적은 거랑. 그리고 뭔가 나에게 의지하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사실 내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느껴질 때... 그런 무력감?”(활동가 E)

“단체 창립하고 나니까 여기서는 제가 모든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제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무한대로 확장되는 시기가 왔는데. 인풋을 얻어야지 나도 단체에서 더 많이 잘 아웃풋할 수 있지만, 또 그 인풋을 얻기 위한 시간이 없고, 어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떨어지고 이제 어떤 데 가서 막 발제하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사람들이 너무 곧이곧대로 내 말을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활동가 B)

“나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누구도 나한테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더 부담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좀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활동가 F)

요컨대 여러 활동가들이 운동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조직 운영이나 활동 기획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을 때, 더 활동 경험이 적은 다른 활동가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때 부담감을 느끼고 운동 지속에 대한 고민을 느낀다. 연구자 중 피아도 ◎단체에서의 반상근을 1년가량 한 뒤 새롭게 반상근을 시작한 동료 활동가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를 의지하거나 질문해올 때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 면담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가 더 확대된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활동가로서 주변에서 요청받는 만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너무 내 말을 믿으면 어떡하지? 나도 정답을 아는 게 아닌데...’ 하는 불안감이 들 때 소진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경력이 쌓이면서 운동 안에 있는 다른 활동가들과 활동 경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영향력의 차이가 가시화되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파악질을 부러도 어쨌든 다들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비슷한 나이대였고 이런 사람들어서 말을 못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20대가 되니까 나이도 차이가, 비청소년과 청소년이라는 나이 권력도 생기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 활동 경력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나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고. (...) 10대 때는 불편한 얘기도 막 했던 것 같은데. 내부 구성원이든 다른 단체 사람이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점점 점점 못하게 되니까, 약간 화병이 되지, 약간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활동가 A)

“어쩔 수 없이 나이와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 나이가, 나이도 적고 활동 경력도 짧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언했을 때, 보통 내가 발언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갑시다’로 끝나더라고요, 회의가.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너무 이 공간에서 많은 걸 가지고,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 회의를 하면 항상 제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무리하는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발언도 최대한 줄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들어요.”(활동가 F)

“너무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위치들이, 어… 극복될 수 없다. (…)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는 단체에서 손쉽게 ‘그냥 다음에는 내가 해볼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동료들과 나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내가 잡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누구도 이것을 선뜻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있었고.”(활동가 B)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 기간이 긴(5년에서 7년 이상) 활동가들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활동가들과 경험과 위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오래 남는 활동가가 드문 청소년인권운동의 특성상, 고년차 활동가들은 조직 안에서 혼자이거나 소수이다. 이런 구도는 이들이 다른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하는 현상이나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는 활동가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평등한 관계의 동료 활동가가 적거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동료 활동가가 부족한 것은 실제 요구받는 역할이나 활동량의 측면에서도 부담감을 늘리며, 동시에 심리적인 어려움과 소진으로도 직결된다. 경험의 차이가 나는 다른 활동가들이 운동과 조직을 함께 책임지도록 성장하고 서로 간의 거리가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활동가로서의 정체화가 어려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점은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부담감과 외로움은 청소년인권운동을 장기간 한 활동가들을 쉽게 지치게 하고 그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다.

4) 과중한 업무량과 생계 문제

해야 하는 일과 역할이 과중하다는 것에서는 실제로 해야 하는 실무의 양이 감당하기 버겁고 노동시간이 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운동에 들이는 노동시간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이 상근을 하는 전업적 활동가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로 봐야 할 듯싶다. 다음은 2016년 쓰인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실을 토로하는 글의

일부이다. 인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이 상근을 하는 전업적 활동가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착시효과로 봐야 할 듯싶다. 다음은 2016년 쓰인 청소년인권운동의 현실을 토로하는 글의 일부이다.

열다섯에 친권자의 탄압을 피해 탈(脫) 가정하여 지금은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가는 청소년활동가 A는 “이삼일에 하루만이라도 7시간씩 자고 싶다”라고 말한다. 장시간 노동과 활동을 병행하려면 휴식 시간, 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 B 역시 밀려드는 수업과 과제 등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 때문에 잠을 줄여 가며 올 한 해를 보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활동을 줄였던 활동가 C는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일해야 했는데, 알바를 끝내고 나면 다른 것을 할 기운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한다.¹³

언급된 사례처럼 많은 활동가가 학업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여러 단체(연대체 포함)를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연구자 중 피아는 1개 단체의 반상근, 1개 상시 연대체의 반상근, 그 외 연대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고, 난다는 1개 단체 상근, 1개 단체의 운영위원 역할, 그 외 연대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현은 주 4일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2개 단체의 운영위원 역할과 1개 연대체에서의 팀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활동가 대부분이 한 단체나 운동에 집중하여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수의 상근·반상근 활동가 또는 상근은 아니어도 상근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는 반대로 너무 긴 시간을 일하곤 한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회원들, 다른 비(非)전업 활동가들과 만나고 일해야 하다 보니 저녁과 주말을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간혹 일정이 풀리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휴식 시간 없이 노동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활동과 생계 해결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

13 공현(2016), 「망하는 것이 청소년운동인지 우리의 인생인지」, 『오늘의 교육』, 30호.

며, 상대적으로 활동에 집중하는 상근·반상근 활동가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중한 업무량과 불규칙한 휴식은 번아웃을 불러오고, 조직 운영상의 문제나 다른 활동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간접적 원인이 된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소진을 저도 경험했던 게 맞고, 그것은 낮은 임금과 높은 강도의 업무, 너무 많은 일을 겹쳐서 함, 그리고 이제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활동가 B)

“활동한 지 얼마 안 된 활동가들하고의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을 제대로 책임 있게, 이제 조치를 안 하고 넘어오다가 이제 터졌다 한 사건이었는데. 맞아, 그때쯤에 터졌던 거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내가 뭔가 지쳐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그때 진짜 워커홀릭이 엄청 심해 가지고 진짜, 진짜 사무실에서 자면서 일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 나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지쳐 있었던 상태였다…”(활동가 A)

생계의 압박은 활동가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면담 참여자 다수는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면서 동시에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활동가 D 등은 경제적 열악함 등 때문에 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임금노동을 병행해야 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

“대학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게, 좀 저는 거의 상근활동가가 아니었을 때도, 상근활동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많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로 약간 처음부터 번아웃인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실습기관을 다니면서 ㉠단체 반상근활동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점을 채우면서 ㉡단체 활동을 막 몇 팀, 몇 개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 끝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졸업 직후) 상근활동은 이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한테서 지원이 끊겼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쉬지 못하고 시작했던.”(활동가 D)

“근데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면, 광주에서, 비수도권 안에서 이으려면, 이제 맨날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약속 잡고 또 따로 만나 가지고 혹시 좀 친밀감을 이제 쌓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또 해야 되지. 근데 나는 몸이 1개지. 시간도 없지, 돈도 벌어야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진감이 엄청 나서.”(활동가 C)

이러한 이야기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운동이 열악하고 동료 활동가가 부족하다는 것,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 생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활동 외에도 여러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은 모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번아웃의 원인이 된다. 나아가 과로가 이어지는 조건, 청소년 인권운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은 활동가들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든다. 청소년인권활동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거나 계획해 본 적이 없는 활동가 G와 같은 경우도 있고, 병행 방법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지속할 수 없어서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이 지역은 청소년인권운동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선배가 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없어서. (공현: 단체의 어떤 상근활동가로 쪽 이렇게 일한다 이런 게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고는 그냥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 (…) 그래서 이거를 쪽 하는, 아예 그런 상을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상근활동가 있고 이제 사무실 있고 이런 게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 이걸로 먹고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활동가 G)

“(대학) 졸업하기 전쯤에 이거 운동이 너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생계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다가, 진짜 고민만 한 4~5년 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나 가지고 붙잡고만 있고, 진짜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근데 활동가들 만나면 좀 해야 될 것 같다가, 안 만나고 있으면은 좀 놓고 싶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운동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거는 좀 생계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았는데.”(활동가 C)

“아무래도 제일 컸던 건 현생, 이른바 현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다녀야 됐고.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학에 다닐 때는) 가정과의 암묵적 계약 관계였던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을 최소한의 평크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목인이 있었고, 그러면은 어쨌든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함께 적어도 ‘네 앞길은 네가 생각을 해야지’ 하는 정도의 당연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 아예 활동을 지금은 중단한 것은 대학원? 생계 고민하며 대학원에 가야겠다.”(활동가 F)

청소년인권운동을 직업 삼아 상근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기본적 원인이다.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의 단체 중에는 활동가들에게 주 40시간 최저임금(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1,822,480원) 이상의 임금과 중소기업 수준의 복리후생 제공이 가능한 단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활동을 지속할 의지를 가진 활동가들도 일정 시점에 이르면 경제적 저소득과 더불어 너무 많은 일과 역할 때문에 지치는 문제로, 생계 보장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운동을 중단하고 싶어지는 비율이 높아진다. 다음 활동가 H의 이야기는 활동가들이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로 운동 지속의 고비를 겪는다면, 20대 중후반에는 생계의 문제로 또 다른 고비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20대 중반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나는 우리 집에 잘 살지 않는데도 그랬거든. 그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한 100만 원 벌어도 그냥 그거 1달 동안 다 쓰면서 살면 생활은 되니까. 그리고 큰돈 들 일 없고 병원비 쓸 일 없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20대 후반? 스물 한 여덟?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이걸 계속, 계속 하게 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0대 중반까지는 솔직히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크게 갈등은 없어. 재정적인 건 내가 만약에 이 생활이 즐겁고 충분히,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나 일상이 좋다면 그냥 조금 일단은 뒤로 놔둘 수도 있는 요소이긴 했어.”(활동가 H)

5) 삶에서의 불안과 차별, 사회 안전망 부재

활동가들이 운동을 그만할지 고민하게 된 순간과 운동 지속에 위기를 겪은 이유를 들으면서 운동 내적 문제 외에도 사회적 문제, 운동 외부의 조건으로 오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무언가 변화를 꾀함으로써 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문제의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에는 다른 인권운동 또는 공익적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공유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본다.

그 첫 번째로 생존이 불안한 여건과 학력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관계망을 꼽을 수 있다.

“대학을 안 가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후에 그랬어. (...) 갑자기 시간은 너무 막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드라마를 엄청 봤어. 하루 종일 현실 도피하면서. 그때 반년 정도 활동도 안 하고 거의 잠적했거든. 무기력한 감정이 커서 집 밖에 잘 안 나갔어. (...) 알던 친구들 대부분 대학에 가 있는데, 나는 이제 집 말고는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뭐가, 음... 내가 끈 떨어진 연 같았어. 왜 그렇게 방황했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정체성에서 소속이 꽤 큰 부분이잖아. 싫든 좋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소속을 두고 살았고,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어디 학교 다니는 누구, 몇 학년이예요’ 하면 설명이 다 됐거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그렇게 나를 설명할 말이 사라진 거야. (...) 남들한테 소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전에 나 자신한테도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안 됐어. 그게 20대 초반 내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나를 이루는 정체성에서 도넛처럼 가운데 부분이 땀 뚫린 느낌? 비대학생인 스무 살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고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로 내 사회적 존재감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 다른 측면에선 학교를 더 이상 안 가게 되면서 내가 속해 있던 가장 커다란 사회, 몇 백 명이 얽힌 관계망이 통째로 없어졌잖아. 학교를 싫어했지만 그건 억압적인 면들 때문이었고, 학교 자체는 다수의 사람들과 언제든지 관계를, 관계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장소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 어딘가에 있긴 있을까’ 하고 좀 막막했던 것 같아. 대학 비진학자들이 흔히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고립감이 이런 관계 맺을 기회, 장소의 상실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활동가 H)

“이 시기에 저희가 마주했던 문제는 뭔가 서로의 불행과 불안정에 의존해서 굴러가는 공동체였었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서로 너무너무 불안정했고 그 상황을 좀 관계적으로 많이 의존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생산적으로 잘 안 됐고 이런 것이었죠. (...)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에 있었던 것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도 그때 집을 나왔었고 여기저기 얹혀살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동료 활동가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지지, 심적 지지대가 많았는데, ㉠단체 안에서는 (...)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정과 우울이 되게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거예요.”(활동가 B)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활동인 인권운동 등의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일반의 삶에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각자도생의 사회,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사회에서는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학 거부 등을 통해 ‘보통’이라 여겨지는 삶의 경로를 벗어난 활동가들은 그 자체로 앞으로의 삶에 불안을 느끼기 쉽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력 차별 및 각종 차별은 물론이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나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억박지르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는 활동가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활동가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불화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안정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빈도도 잦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빈도로 겪는 불안정과 우울함 등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여쭙면 더 클 수도 있다.

면담 참여자 중 여성인 경우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이런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활동가들이 그러한 불안과 우울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 중 난다 역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했는데, 돌이켜보면 20대 때의 가장 큰 정서는 불안함이었다고 말한다. 난다는

특히 23세와 27세 무렵을 기점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되는 경험을 했다. 스물세 살은 포래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 때와 겹치는 시기였다. 그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도 한몫했다. ‘다들 떠나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자문하며 뒤늦게라도 대학을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다가 번아웃을 겪기도 했던 활동가 H는 활동가의 생계 보장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한 그것이 청소년인권운동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취업난과 부실한 복지 등 생존이 어려운 사회상이 활동가들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의견을 더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한 장벽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일수록 활동가로 살아가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6) 사회적 이해 부족

사회운동, 인권운동 등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가 ‘보편적인 삶’과는 조금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설명할 ‘이름’을 찾아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이나 활동가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 생소하게 여겨지는 탓이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이름 찾기’가 한층 더 막막하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데,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시키기가 만만치 않다.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와 몸담은 운동이라도 안정적이었다면 그나마 덜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력 면에서도… 일, 그냥 뭔가 취업을 할 때 ①단체의 경력을 쓸 수 없으니까 보통은, 그런 점에서도 불안함이 있겠지. 좀 더 다른.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활동가 E)

삶에 대한 불안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력이라는 점과도 겹쳐서 볼 수 있다. 연구자 중 난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대학도 안 갔는데 스물일곱이 되도록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냐?”라는 핀잔 섞인 질문을 받

고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다. 청소년인권운동 또는 몇 년 상근했던 인권단체 경력을 적자니 오히려 채용에 불리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인권운동을 포함하여 좌파적으로 비치는 사회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편견의 대상이 되고 꺼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우려는 한국 사회의 경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은 아예 어떤 활동인지 이해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순간이 많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회랑 걸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우선은 어렵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듣기도 어려운데, 그 얘기를 이제 세계하는데다가 (…) 왜 맞는 말인데 왜 아무도 동의 안 하지? 왜 동참 안 하지? 너무 맞는 말인데.”(활동가 G)

“들었던 말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 하나고, 또 내가 예전에 고민했던 것 같기도 한데, ‘고립되면 어찌지’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자기는 이제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밖에 못 있는다’라는 고민들을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역지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좌담 중 연구자 피아)

“내가 생각하는 제일 큰 어려움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의 원칙이나 지향, 가치를 잘 지향하면 할수록 고립되기 쉽다? (…) 예를 들면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랑 막 이렇게 대판하고, 이렇게 감수성이 깨일수록 학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학교를 그만둬.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나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려면은 가족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삶의 성공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강단이나 자기 계획이 굉장히 투철하거나, 뭔가 그래야지 살아남는 사회인 거 같아, 이 사회가. 근데 학교를 그만두면 또 굉장히 막 좀 정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들이밀 명함도, 사회적 명함도 별로 없어지고. 물론 운동 초기에는 막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지?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너무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걸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운동이 미워지겠지? 자기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이 운동을, 운동을 미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현재의 자기를 미워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 × ×(교사 활동가)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교사 사회 내에서 고립됐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게 나는 너무 어려운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운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함정이야.”(활동가 Z)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장 자체가 소수의 것이고 낮은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서 운동 지속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인권에 적대적인 사회 환경은 역설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이 필요한 이유이지만 그만큼 청소년인권운동을 접하고 지지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한 상황이 초래되는 근본적 배경이며, 활동가 개인 삶의 경험에도 크게 작용한다. 청소년인권에 친화적인 문화나 관계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사회 일반과는 불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삶의 길로 들어섰다는 인식은 때로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층 더 큰 문제는 운동 사회 내에서도 청소년인권운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과정 정도로 인식되곤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가 다른 성격의 사회운동, 진보정당운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이다.

“(대학생운동 단체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단위 있어서 서울대에서 다 같이 워크숍 하고, 5.18 그런 시기마다 막 어디 달려가서 막 뭐 하고 그런데, 그것도 진짜 정신없단 말 이야. 막 매주 지령이 내려와. 같이 공부해. (…) 이제 내가 초창기에 거기서 하는. 무슨 농활을 갔어. 근데 거기 저녁에 술을 먹다가 청소년인권운동 얘기가 나왔어. 어,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청소년인권의) 부차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거는 이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진짜 겁나 싸우고, 그 사람이랑. 울었어, 너무 서러워서… 왜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활동가 G)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던 몇 가지를 좀 더 고민해 보자면은, 하나가 다른 활동가의 시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청소년운동만 한 게 아니었으니까, (...) 항상 ‘언제까지 청소년운동할 거예요?’라고 질문을 받는.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운동이 단계로 여겨지잖아요. 그런 시선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서 계속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전체 진보정당운동, 진보운동 내에서 청소년운동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파이라고 해야 되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주요 활동가들이 제가 활동 연차가 점점 쌓이고, 활동 경력도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운동만으로는 그런 기대가 충족될 수 없는 거죠. (...) 주변에서 보기에는 제가 계속, 그러니까 빨리 손 떼지 않고 계속 참견하는 사람인 거죠. 청소년이 아닌데도 청소년운동에 계속 참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들으니까 ‘그런가?’ 싶은 거죠. 실제로 그런 말도 들은 적 있고.”(활동가 F)

이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이면서 비청소년인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역할 및 존재에 대한 몰이해이다. 남성이 여성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른 운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받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운동을, 비이주민이 이주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편견과 평가절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주 만나고 협력, 연대하는 다른 운동 사회의 활동가에게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되면 활동가들은 힘이 빠지거나 자기 운동에 회의를 느끼기 쉽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청소년기를 벗어나서도 지속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고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청소년인권운동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과제이다.

(4)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

이런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도 계속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활동가들은 어떤 시도를 했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진감, 회의감 등에 빠졌을 때 대처한 방법과 한계 등을 살펴보며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휴식과 치유를 통해 삶을 돌보는 일

여러 면담자가 운동의 지속을 위해 ‘휴식’과 ‘번아웃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행, 상담, 운동(스포츠),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 쉴 때는 휴대폰 방해금지 모드 설정하기 등 방법은 다양했다. 어떤 활동가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휴식의 필요성을 의논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지만, 대개는 각자의 여건에 맞춰 휴식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바빠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잘 쉬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번아웃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정신수련과 쉬, 이런 건 진짜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요가도 그래서 했고. 상담도 계속 받았고. 그리고 막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도 가고.”(활동가 D)

“주 1일은 무조건 쉬어야지, 뭐 문화생활 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잘 안 하게 되고. (...) 약간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정말 이 운동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계속 이 운동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안하고 싶은가, 이런 걸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7개월 동안의 휴가가. 어쨌든 오직 임노동만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니까. 조금 더 약간 생각의 폭이 넓어졌던 시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활동가 A)

운동의 지속을 위한 쉽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휴식 시간이나 여가가 없이 활동을 하는 것은 건강의 측면에서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평화운동가인 활동가 Y는 ‘돈을 많이 못 주니까 시간은 뺏지 말자’라는 인식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활동을 오래 하기 위한 자기 조직의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주었다.

“저희는 그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뭐 돈을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소진되지 말자. 이거는 처음부터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소진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못하겠으면 그냥 하지 말자. (...) 우리가 기본 기조가 돈을 많이 못 챙겨주니까 시간은 빼앗지 말자 주의. 약간 저 사실 계속 야근도 거의 안 해요. 출근은 되게 유연하게 하고, 퇴근은 칼같이 하고. 물론 회의가 저녁에 많이 있는데 회의 있으면 다음 날 좀 천천히 출근하고. (...) 일을 많이 하지 말자.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소진되지 않게 하자. 이런 걸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자리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활동가 Y)

휴식은 자신의 삶을 잘 돌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활동가로서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 책으로 가득 찬 책꽂이를 움직이려면 책을 잠시 빼서 내려두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변화의 가능성도 떠올릴 수 있다.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멍 때리는 시간... 사람마다 뭐 하면 ‘멍 때리기’가 된다, 이런 게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그 시간을 주변 사람들이 잘 케어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게 지속적인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활동가 A)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소진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2018년 상반기

에는 제가 좀 쉬다가 그 이후에는 동료들이 아예 그냥 쉬기로 결정하면서, 좀 서로 쉬
을 가지고 하면서 정리가 잘 됐거든요. (...) 사람은 못 하겠으면 쉬어야 된다는 게 있었
고. 제가 3월에 이 결정(내년에 운동을 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3월의 어느 날에 이제
이러다가 일을 못하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당장 내일부터 말하고 다녀야겠
다.”(활동가 B)

일상적 쉬이 보장되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도 중요하다.
연구자 중 난다는 운동을 시작하고 10년 만에 약 7개월 동안 활동을 쉬었다. 난다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몇몇 운동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식년’ 제도를 청소년
인권운동에서도 적용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난다의 ‘반(半)안식년’을 보며 피아
는 “저렇게 쉬 수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내년에 쉬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
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재충전 방법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휴식이 필
요하다고 느끼는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청소년인권운동 차원에서 활동가의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에게
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쉬는 시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
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휴식과 관련해, 면담 참여자 중 활동가 D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 자신
을 포함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제대로 쉬 줄 모른다’,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한다’
라는 고민이었다.

“저는 일 말고 다른 취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일이 항상 먼저였고. 그래서
그냥 일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일하지 않는 시간은 다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
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밥을 챙겨 먹거나 씻거나 자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 1통 보내는 게 훨씬 더 쉽고 밥은 일어나서
고민해야 되고. (...) 청소년운동은 뭔가 막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활동
을 하기 위해서, 그냥 되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실무를 뭔가 해보라고 던져주는 편이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근데 할 수 있네, 괜찮네,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한 일
이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네.’ 이런 효능감이 초반에는 되게 좋

있고, 그래서 계속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 (...) 일중독이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 비청소년이 되고 나서 청소년 때보다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고, 뭔가 거주 지역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취를 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패턴, 밥 먹는 패턴,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뭐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하나 하나 하나의 것들을 뭔가 열심히 시도해 보고 고민해 보고 알아보고 할 시간에, 그냥 다 활동을 했던 것 같거든요. (...) 제가 생각보다 저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다는 그게 크게 일중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활동가 D)

이러한 케이스는 활동가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적 조직이자 활동이 청소년인권 운동인 경우가 많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자신에게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여가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사적 생활을 꾸려가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활동가로 정체화하면서 운동 위주의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생활 주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생활 패턴이라거나 자신을 돌보는 법 등은 학교 같은 데서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한국의 학교나 학생으로서의 생활 환경에서는 반대로 자신을 과중한 과업 속에 몰아넣고 돌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패턴을 익히게 된다. 높은 학업 성취를 요구받고 끊임없이 평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살아온 최근의 청년들이 쉽게 번아웃에 빠지는 경향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해석된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휴식과 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 자기 삶을 돌보는 법 등을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공유하고 함께 삶을 돌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2) 생계 보장 등 재정 마련

“돈이 필요하죠. ‘돈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해결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 내가 생계유지 때문에 활동을 별로 못하는데, 내 생계를 어느 정도 이제 운동적 차원에서 좀 해결이 되면, 어쨌든 거기(운동)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거고.”(활동가 C)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이제 20대, 30대가 되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런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뭔가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으로 가니까. 거기서 생기는 불안감과 막막함과 불안정함을 느끼면서 그냥 일반적 회사에 가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 그래서 꼭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사람들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당장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당장 나도 방법이 없고.”(활동가 A)

재정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열악한 조건을 해결하고 활동가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번아웃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장 절실하면서 가장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모두가 쉽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특히 활동가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급선무이다.

사실 청소년인권운동의 재정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 개선의 속도가 너무나 느렸던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이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도 반상근·상근활동가를 두고 적제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정기후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후원 행사나 후원인 모집 기획을 꾸준히 시도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에서 활동가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재정을 개선하는 방법 외에도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할지,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등에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단체가 여유가 없고 이러면은 아껴야 되고 그래서. (...) 그냥 한 몇 만 원, 몇 십만 원 정도는 약간 샅질해도 단체가 타격받지 않을 수 있는 플랜을 항상, 재정 플랜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한번 망해보기도 하는 기회. 그런 기회로 마련하는 것 같아요.”(활동가 A)

“돈을 조금 쪼개가지고 다 (상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뭔가 활동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

자면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자원이 나한테 언제까지 허용될까? 이런 고민을 이번에 진짜 심각하게 하게 됐거든요. 내년에 내가 하려는 거는 욕심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진짜 그냥 돈인 것 같아요. 어디서 나한테 돈을 줄 것인가.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운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니깐. 그래서 어찌지...”(활동가 D)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착오의 기회를 위해 재정을 일부 ‘낭비’해도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조직 안에서 고민을 나누고 합의해야만 한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인건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등도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의 생계 문제를 놓고 조직에서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뢰와 더불어 조직과 운동의 우선순위에 관한 구성원들의 고민과 허심탄회한 토론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그동안 활동가의 생계 유지 문제에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크게 두지 않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경우가 반성할 부분이다.

“생계 문제가 어차피, 좀 한 100만 원, 200만 원, 여럿이라면 정말 좀 수백만 원 있는 게, 있지 않으면 해결을 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체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상근자를 둘 거냐, 뭐 이런 것도 갈등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에) 돈을 쓰는 걸 좀 망설이진 않았나 반성을... 돈이 없기도 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절실하게 필요하다 했으면 좀 더 일찍 마련할 순 없었나 한. 결국 그게 연구의 문제의식처럼, 우리가 ‘나이 먹어도 청소년인권운동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지만 사실은, 정말 지속하는 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좌담 중 연구자 공현)

그러나 상근활동가를 두고 활동가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고민이 끝나지는 않는다. 몇 명 정도의 상근활동가가 적절한지, 상근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돈을 받고 활동하는 상근활동가와 돈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활동가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상근활동가의 존재는 현재도 운동 안에서 많은 쟁점을 보이

고 있다. 활동가 F는 상근활동가의 역할이나 활동 방식에서 갈등이 생긴 경험과 더불어 다른 영역의 조직의 사례를 들며 상근활동가가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운동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임금이 나오게 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생계가 유지되면 되게 잘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웃음) 그러니까 좀 오히려 생계가, 생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필요한데, 운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운동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인가, 다 좋은 영향인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활동가 F)

활동가로서의 부담감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상근 역할을 맡은 활동가들이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요구받는 만큼 활동을 해내지 못한다는 버거움을 느끼게 되어 더 쉽게 소진감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 즉, 생계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운동의 어려움이 되는 요인, 특히 활동가로서 정체화 문제와 책임에 관한 부담감 등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운동의 의미화와 활동가로서의 정체화

‘그만하는 마음’ 부분에서는 ‘활동가 정체화의 어려움’을 청소년인권운동 초기 운동에 들어오고 이후 운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보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인식하는 것, 즉 활동가로서 정체화가 잘 이뤄진다면 계속하는 마음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 H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로서 자기를 정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체화를 위해서는 운동 안에서 주변의 다른 활동가들과 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삶에서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활동가 E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활동가의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내적 동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실 ‘내

적 동기'란 말 그대로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 갈 방법이 있을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도 운동이나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운동의 상이라는 게 잡혀야지 이걸 계속하는 것 같아. 활동가라고 자기 정체화를 하면서. 근데 그 정체화할 때 필요한 게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에서 뭐가 부대끼고, 뭐가 어렵고, 나는 활동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 ‘너는 운동을 왜 해?’라고 할 때 나는 시종일관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그 자신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의미화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자기 정체화라는 과정을 어떻게 다룰까,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거든.”(활동가 H)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가능할까? 10년 넘게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살고 있는 활동가 A는 청소년인권이 당사자만의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 중의 한 의제로서 갖는 무게와 의미에 대해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가 A는 청소년일 때부터 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보통 스무 살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낸다고 본다. 생계 활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게 좋을지, 비청소년이자 오래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무게를 두고자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지향과도 연관이 있다. 청소년 당사자로서 운동에 참여할 때는 특정 이슈에 관해 직접 발언을 한다든가, 선두에 선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일이고 또 운동적 의미도 있다. 반면 비청소년인 활동가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거나 대응할 경우, 직접 나서서 발언하기보다는 청소년인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강조되거나 부각될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요구받곤 한다. 그런데 비청소년이 되면서 본인의 역할이나 위치를 전환하지 못하고 활동의 의미화를 잘 못하게 되면, 이러한 위치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기 쉽고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각자

언제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전환을 경험한 활동가들은 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바꿔야겠다고 느꼈는지를 공유하고, 활동가로서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는 것의 의미에 관해 공식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이 사회운동 의제로서, 인권운동의 의제로서 무게와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갖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 정리가 안 될 때,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머물 수 있는 지대가 있으면 좋겠다. 쉬면서든…. 그게 연구소나 뭐 그런 형태일 수도 있을 거 같고.”(활동가 A)

활동가 H는 활동가로서의 정체화 과정이 자기 운동의 의미를 찾고 운동을 하는 이유를 채워 나가는 것이면서, 운동에 대한 자기 욕구를 찾고 실제 활동과 연결하는 복합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처음 시작하고 혹은 한 3, 4년, 이렇게 계속 해오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활동가로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 혹은 계속할지 말지 선택하는, 간을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나는 나를, 내 경험을 돌아봤을 때는 그게 제일 아쉽다? 나는 나 스스로한테도 별로 잘 안 물어봤던 것 같아. ‘그냥 하면 되지 뭐.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결국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이유를 못 찾은 거지. ‘나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나? 왜?’ 이게 너무 크고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10대에서 20대 초반 중반이 되면서 사람도 상황도 변할 테니 10대 때 가졌던 답 하나로 운동을 계속 끌고 갈 순 없고 당연히 새로운 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런 변화의 시기마다 이 대답의 자리에 채워 넣을 내 이야기가 스스로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 활동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 밀도가 높은 시간을 더 자주, 더 오래 보낼수록 이게 지속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 이야기를 찾을 때 부채감이나 의무감 보다는 자기 욕구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원하고, 또 이런 걸 얻고 싶은데 그게 ‘여기’(청소년인권운동)에 있는 상태로 만들기. 당연하고 뻔한 말이지만, 활동 이랑 내가 가진 욕구를 건강하게 잘 연결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남더라고.”(활동가 H)

자신이 하는 운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거창해 보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작은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평화운동 활동가인 활동가 Y는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운동을 평가하고 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효용감을 얻는 데 주력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우리 활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효용감을 얻어야 될 필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먼 목표,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성취들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은 못 벌고 누가 크게 안 알아줘도 실제로 우리가 사회 변화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효용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다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걸 달성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오히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50년을 해도 하나도 안 바뀌면 사실은 힘들어서 못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희망이 없으면. (...) 조그만 성과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는 굉장히 다 같이 기뻐하고 그거를 되게 잘 평가하고.”(활동가 Y)

이에 더해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동이란 무엇인지, 활동가란 어떤 존재인지, 활동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인식도 필요하다. 활동가가 무엇인지, 활동가의 활동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회운동의 활동가로서 직업정신이자 직업윤리가 공유되고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활동가로 계속 살아갈지, 연구자나 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를 추구할지를 고민하다가 자신이 ‘명예롭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포기했다는 활동가 D의 이야기나 다른 활동가들의 사례를 지적한 활동가 A의 의견은 활동가 정체성이 운동 과정에서 흔들리는 예를 보여 준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보다 좀 더 이름이 있고 더 명예롭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하

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를 알아차렸던 거, 그러면서 '이건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원에 가려는 마음은 약간 부모님한테도 좀 잘 보이는 직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더 컸다는 걸 제가 알아차리고…. 네, 그러면서 그냥 무산됐어요.”(활동가 D)

“이제 부귀영화에 대한 개인의 욕심, 출세욕, 명예욕, 그런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트러블. 저는 이거 실제로 좀 많이 막 봤던 거 같아요. 뭐 일자리 이런 거랑 좀 별개로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활동가보다는 조금 더 전문직 또는 좀 주류 이런 데로 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생계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 자기도 전문직으로서 인정받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서 진로를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활동가로서 고민을 가지고 활동가의 포지션으로 평생을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의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이 가지는 어떤 불안과 욕심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운동이.”(활동가 A)

활동가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활동가가 되기 위해 정해진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스스로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칭할 수 있고, 다만 동료 활동가들과 바람직한 활동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권활동가로의 정체화, 나아가서는 활동가로 살고 활동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왜 가치 있는지를 운동 안에서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활동가상을 합의하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들이 느끼는 번민이나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조직 안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활동가로서 훈련과 성장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 정체성을 갖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고민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1차적인 진입 단계라면,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기로 한 다음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장과 훈련이 아

닐까? 운동의 의미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운동에 오래 지속하는 활동가들과 새롭게 참여하는 활동가 모두에게 활동가가 되어 가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회원’에서 ‘활동가’가 되는 그 과정이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활동가 E)

활동가 E는 좌담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한 낮은 단계의 운동 주체를 ‘회원’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운동을 책임지는 주체를 ‘활동가’로 칭하며, 활동가의 운동 지속 말고도 회원들이 어떻게 활동가가 되게 할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너무 심하지 않나?’, ‘이걸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처음 청소년인권운동을 접하면서 회원이자 지지자로서 비교적 느슨한 수준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운동의 의미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활동가 F는 지금까지는 운동에 대한 정보와 문화 등을 접하고 활동가로서 역할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이었다고 진단했다. 체계적인 교육 자료나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오래 한 활동가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관련 자료가 잘 쌓여 있지 못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한 것에는 운동과 단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활동가 B가 속한 단체는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데 역할과 직책을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등 구조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작은 규모에서 다른 운동 단체의 조직 구조를 갖추는 부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책임을 차례차례 겪은 경력이 있는 활동가를 만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처음에는 뭐 팀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팀장을 맡고 그다음에 국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꼭 이런 직급이 아니더라도 그 순서대로 뭔가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호로록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차근차근히 하는 게

없는 조직 구조. 그래서 그 구조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작은 조직이라서, 이게 구조가 사람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책임을 다 지거나 안 지거나밖에 없는.”(활동가 B)

“지금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 본인이 들어오기 단 1년 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 이제 체계적인 기록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활동했던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의 발언권이 너무 커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어쩔 건데?’ 하는 생각도 있고.”(활동가 F)

“아주 오래 한 활동가, 저 사람들이 어떤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게 저한테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경험에 대한 공유들이 좀 더 요즘에는 많이 (고민으로) 남는 것 같고. 활동을 아예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경험과 성장이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활동의 경험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단체 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이런 생각이 있고.”(활동가 B)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소수의 활동가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활동가는 오래 활동한 사람이 다른 예시나 참고 자료를 거의 대신하다 보니 ‘나도 저만큼 해야 하나 보다’ 하는 부담감을 느낀다. 오래 한 활동가는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당장 다른 대안을 뚜렷하게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멀티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

청소년인권운동은 그동안 활동가가 운동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많은 부분을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어 왔다. 물론 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 기반을 만드는 작

업의 일환으로 개별 단체들을 넘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교류하는 활동가대회 성격의 행사(‘청소년활동가마당’)나 청소년인권운동의 담론 학습을 위한 교육(‘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역량 튼튼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그때그때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는 등 다소 단기적으로 진행된 면이 크다. 장기적으로 활동가의 훈련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활동 단계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전망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료 관계

앞서 ‘동료의 부족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함께하는 동료가 더 많아지고 책임도 비슷한 무게로 나눠질 수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까? 활동가 C는 자신의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전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가 기대 수 있는 활동가들이 있는 새로운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동료를 찾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좀더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좀더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㉔단체 활동 시작한 게 (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대처한 거 아니었을까.”(활동가 C)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활동가가 많지 않은 현실은 소수의 활동가가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게 만든다. 그리고 소수의 활동가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활동가들이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활동가 A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그게 나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동지들에게 피해나 어려움이 끼치는 상황을 종종 겪었다”라고 말했다. 동료가 함께하기로 한 일을 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때,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서로 신뢰를 나누었던 동료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계를 저버릴 때, 함께하던 동료 활동가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 보내야 할 때 남은 이들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한다.

동료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미래를 그려 보기 어려운 조건이 되며 활동가 번아웃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조건 중 운동의 전망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정에 가깝기도 한데 그것이 개인이 개인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어떤 인정과 존중이 가능한지? 당신이 일해 온 것들이 당신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음을 끊임없이 봐주고 같이 평가해 주고. 사실 이 일은 실패였지만, 너는 이런 성장을 했어, 이런 거 의미화해 주고. 이런 동료가 필요한데.”(활동가 B)

활동가 B의 말처럼 운동 안에서 서로의 뜻과 수고로움, 활동의 의미를 알아주는 동료의 존재는 ‘지속가능한 마음’의 힘이 된다. 그러한 동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서로의 일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망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운동적 과제는 무엇일까? 활동가 A는 ‘단체들이 1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단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씩. 동료 시민이 된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스스로의 고민도 필요하고,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해 주고. 만약 뭔가를 못했다, 왜 그랬을까? 시간이 부족하다? 집중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 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을 때는 서로 물어보면서 하자든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 (의제나 담론을 주제로 한) 내부 세미나나 공부 모임도 그런 성격일 거고. (...) 단체들이 10프로 정도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예산이든, 시간이든, 역량이든... 그래야 실수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느긋하게 돌아볼 수 있으니까.”(활동가 A)

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료 활동가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와 고민, 권한을 공유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망해보기도 하고, 이후에 수습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활동가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활동가로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생활을 돌보는 등의 과제들이 먼저 해결된다면, 서로 안정적으로 신뢰하고 전망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료 관계를 만들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어쩌면 힘이 되는 동료의 존재가 만들어 내는 관계망 자체가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반 위에 운동의 전망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 관계가 쌓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6) 다른 운동과 연결을 통한 확장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 중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운동과 연결을 통한 확장’이다. 1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의 1세대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 영역에, 또 여러 사회운동에 청소년인권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함께해 온 활동가 Z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기반에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작 지금 청소년인권운동과 이전의 활동가 사이가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이 개인의 몫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과거 청소년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청소년운동 하면서 또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청소년인권 현장이 자기의 지금 직업이든 활동이든 그것에 어떤 생기? 진정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고리들을 좀 많이 만들고 발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청소년운동의 확장? 이런 걸로 많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활동가 Z)

활동가 B는 동료 관계가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운동의 활동가들과 연결되는 동료 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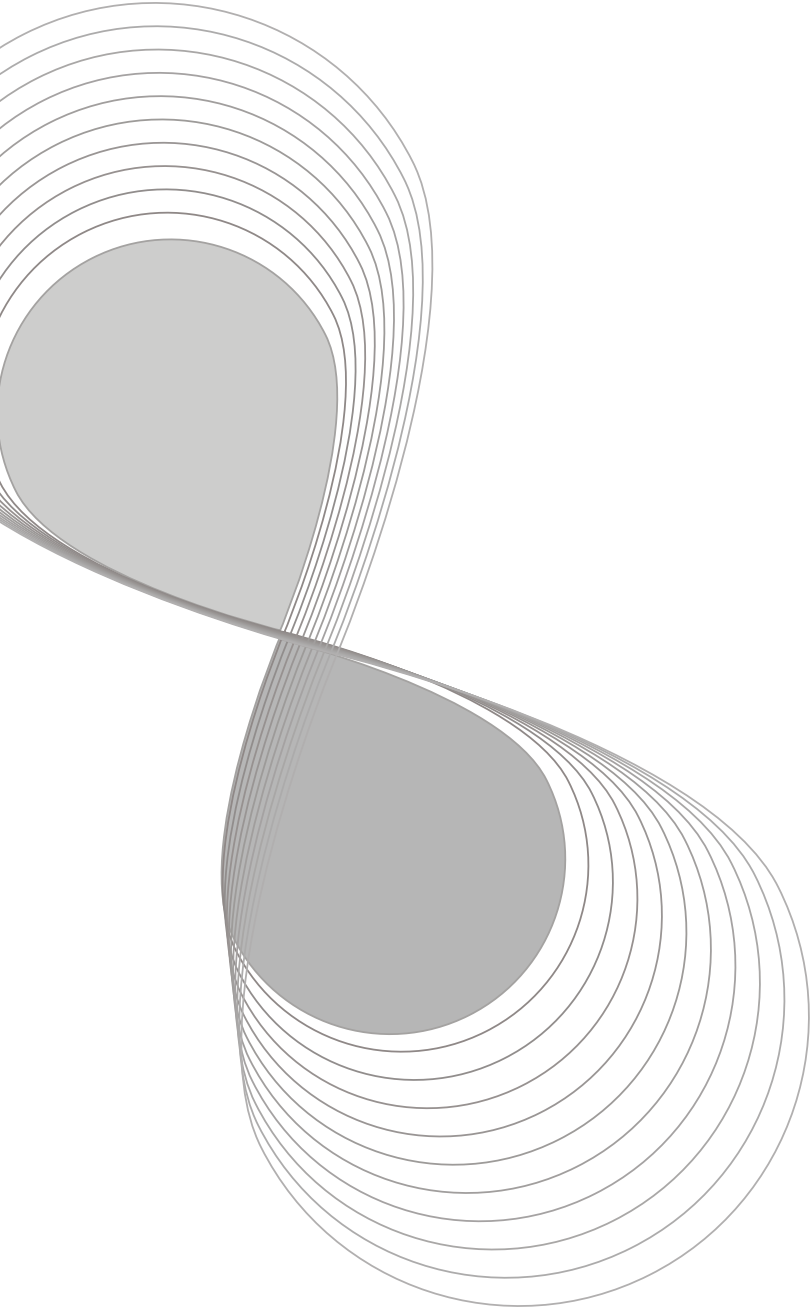
“‘동료 있음’이 ‘전망 있음’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런데 그건 한편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사람을 많이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운동들이 청소년인권운동에 더 잘 연결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 청소년인권운동 풀 자체에서 동료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민 사회가 청소년인권운동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에 있어 우리는 늘 긴장하고 위축되고 날 설명해야 되고 꼭 문제제기해야 되는 관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동료들과 일을 해본 게 되게 안정감으로 남았던 거 같거든요.”(활동가 B)

나이주의적인 문화와 제도, 어린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하대와 비하 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활동가들은 운동 안팎의 오해와 편견에도 맞서야 했다. 비청소년 중심 사회의 문제, 청소년인권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이었다. 또한 ‘그만하는 마음’에서 지적했듯 다른 사회운동에서도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왕왕 겪어 왔다. 활동가 Z와 활동가 B의 말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동료’가 청소년인권운동의 동료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 자체가 이해받고 지지받으며 연대하는 것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운동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은 이 청소년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소년운동 안으로 들여온다는 생각이, 기획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청소년운동을 지키겠다는 마인드는 있는데, 연결이나 확장에 대한 기획이 없으니까 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에 중심을 둔 사람들이 부채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물

론 이 운동만을 이렇게 지키고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막 상근활동가 고민하고 운동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얘기하는데, 이 연결 지점들이 좀 더 뚝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활동가 Z)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의 이해, 인정 부족은 청소년인권운동이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이며,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과 꾸준히 만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연대 단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연결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인권운동과 다른 운동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고 이를 구현하는 자리를 만들며,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 우선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배경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할 방법을 찾는 것은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달는 이야기

우리가 이어갈 삶과 운동 : 연구를 마치며

이 연구는 ‘어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어쩌다’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 ‘이대로는 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 길을 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한 흔적이다.

연구를 하며 10명의 전·현 활동가와 인접운동 활동가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담았다. 먼저 청소년인권운동이 왜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지,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격과 간략한 역사 정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활동가 면담을 통해 발견한 운동을 계속 하게 하는 요인과 운동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을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활동가들을 만나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하더라도 이 운동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전·현 활동가 사이, 전 활동가와 운동 사이, 다른 운동과 청소년인권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달는 이야기에서는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을 넘어 그만하는 마음과 계속하는 마음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은 고민과 과제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어갈 청소년인권활동가로서의 삶과 청소년인권운동의 길을 밝히고자 한다.

(1) 그만하는 마음과 계속하는 마음이 만나는 순간 : 다양한 네트워크 가능성 모색

“나는 이 운동이 떠나는 사람들이, 이별이 많은 운동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오히려 상수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야. 그렇잖아. 이별에 익숙해지지 않고 싶지만, 근데 익숙해져야 하는 운동, 이런 느낌. (...) 이렇게 딱 쥐었는데, 모래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사람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느낌. 현재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이 운동에 와서 견뎌본 사람이나, 그대들처럼 이렇게 지키려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이 운동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그래서 덜 슬퍼하고, 자기 탓이든 남 탓이든 운동 탓이든 덜 탓했으면 좋겠어.”(활동가 Z)

활동가 Z의 의견처럼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 특히 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가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운동의 과업을 모색하고 있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은 그 특징상 ‘이별이 많은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청소년인권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별이 많은 운동’을 운동의 약점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말하자면, 청소년기는 짧은 기간만 유지되고 오래도록 청소년인 사람은 없지만, 이를 뒤집으면 누구나 청소년이었던 경험이 있기에 청소년인권 문제는 일시적이지만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만둔 사람들,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질문이었다.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운동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SNS에 글 하나 쓰는 거 다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 근데 그냥 거기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의견이 바뀌더라도,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뭔가 행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 입시 문제가 결국 직장 문제로 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어, 그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고 막 뭘 하면서 살까? 가족 문제도 결국엔 독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쭉 되니까 (...)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과 현재의 내 삶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분명히 (내가 현재)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에 다 이때부터 시작했던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 (...)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돈으로 후원한다,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활동가 G)

“활동가들이 운동에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연결돼 있거나,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좀 지워 줘서 활동가들이 좀 짐을 좀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거 (...)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느라 활동을 못 하다가 변호사 자격 따고서 ‘이제 법률 지원 하면서 활동해야지’라고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에서 역할을 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은 운동과 멀어져요. (...) 언제까지 활동가들이 법률 의견서까지 다 쓸 거냐고. 이제 법률 의견서는 이제 그런 애들이 쓸 수 있게 하고, 활동가들은 다른 또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잖아.”(활동가 A)

운동을 그만둔 활동가 G는 그 이후의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과 가치관에서 연결되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는 후원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계속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A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계 맺기와 역할을 기대했다. 꼭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에 필요한 역할이나 일을 분담해 준다면 활동가이 지치는 것을 막는 데도 보탬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청소년인권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지자, 후원자 또는 조력자로 남길 바라는 것이다.

“사실 평화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있고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오래 같이 활동을 하고, 뭐 전업 활동가를 못하거나 거리가 물리적으로 생겨서 많이 못해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고. 평화운동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자기 인생에 닥친 입영 영장에 대해서 고민하다 병역거부 한 분들은 사실은 오래 머물진 않아요. 감옥 갔다 오면 열심히 막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서운하지 않고 당연히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뭘 같이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 우리 활동에는 이렇게 막 오지는 않아. 바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와 달라고 하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한 이제 7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꼭 다 와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후원금은 다 내면 좋겠는데,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웃음)”(활동가 Y)

운동을 거쳐 간 사람들이 운동의 지지자로 남고 후원하길 바라는 마음은 다른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활동가 Y는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도 ‘병역거부자’라는 정체성, 본인의 상황에 따라 평화운동단체를 찾아온 사람보다는 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더 오래 같이 활동을 하고 이후에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더라는 평을 했다.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운동을 그만둔 이후의 관계 지속이라는 양쪽 모두에 운동의 의제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작용한다는 힌트를 준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인권운동을 중단한 이후 지지자로 남기를 기대하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점점 당사자성에서 멀어지는 경험 속에서, (...)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념에서도 멀어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청소년운동도 변하니까,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결국 단순 지지자로 남으면은 결국엔 불화할 것 같은 거죠. 그러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해요. (...) 그러니까 청소년운동에서 멀어지면 내가 가진 기득권에 갇힐 것 같은 느낌? 적어도 청소년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운동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운동은 나이 권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운동인데, 점점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 권력에서 기득권이 돼 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 활동을 떠나 있게 되면은 순식간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잠깐잠깐 활동을 쉬면서 그걸 느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점 후원자가 되는, 멀어지는 지지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지자가 되려면 문제의식과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들을 계속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지지자로만은 그런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활동가 F)

“저는 사실 이전(移轉)이라는 감각을 지금 처음 가져보거든요. 예전에는 이전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다 내가 하는 거, 나의 성장, 이런 거였으면. (...) 이제 ‘6개월만 쉬다 돌아올게’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공부해 볼게.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우리의 큰 담론과 약속들을 지켜 나갈게’. 내가 지금 이런 약속인 거니까, 물론 이래 놓고 또 이제 내년에 하고 할 사람 없으면 제가 또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냥, 아무튼 약속을 할 땐 그렇게 하는 거니까. (...) 우리는 흩어질 것이고 우리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점과 점으로만 연결될 것인데, 그게 선으로서 ㉠단체에서 만나서 그때 위치를 만들었던 동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단절되지 않았고 당신은 떠나가지 않았고,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감각 정도가 있고. 그래서 잘 떠나고 잘 돌아올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라는 감각이 계속 있는 것 같고. (...) 당신이 어디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운동의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 이전(移轉)의 시기고 물론 전 어디를 가든 청소년운동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단체와는 그런 약속이 필요한 시기라, 나는 사실 ㉠단체에 정치적 동료로서 함께할 것이고 ㉠단체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은 딱히 없지만 저는 사실 요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활동가 B)

청소년이란 존재와 청소년인권 의제의 특성상 청소년인권운동의 단순한 지지자로만 남는다면 점점 멀어지고 지지자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물론 운동을 떠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문제의식을 잃고 기존 체제의 보수적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 일은 흔한 현상이다. 그런데 청소년인권운동은 여기에 더해 자신이 점점 나이를 먹어 가면서 청소년이라는 위치성을 잃고 청소년기의 기억도 희미해지며, 비청소년으로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그렇기에 좀 더 명료한 약속과 인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래 활

동하던 단체를 잠시 쉬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B는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 활동하던 가치관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삶을 살 것이라는, ‘정치적 동료로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 또는 조직 차원에서 어떤 기획이나 시도를 해 봐야 할까? 우선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느슨하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꾸준히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것은 열려 있는 공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참여하는 데 별 부담이 없는 행사나 또는 아예 운동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인터뷰나 만남일 수도 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오면 지금 내가 단체 활동가로서 회의나 이런 데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강좌를 들으러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심심할 때 와 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활동 소식 계속 듣고.”(활동가 A)

“이런 걸 해, 이런 거. 나랑 지금 만난 인터뷰 있잖아. 너네 이거 기획한 것도 어쨌든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서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다시 회고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잖아. 이게 거리인 것 같아 지금 이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거 자체가. (...)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청소년 관련 소설 쓴 사례를 언급하며) 같이 여기 공간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나는 이렇게 각자 자기 영역에서, 그런 시선들, 가졌던 경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것 잘 놓치지 않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느슨하게나마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나 이벤트나 행사일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가볍게 만나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활동가 B)

“이번에 청소년활동가마당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을 지금 안 하는 (...) 사람들도 막 저한테 이거 어디서 하냐고, 뭐 하냐고, 나도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아무래도 청활마(청소년활동가마당)는 허들이

낮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꼭 소속이 없더라도. 그래서 막 가고 싶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뭔가 연결 지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시고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활동가 D)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을 좀 더 의례화하고, 이를 개인의 몫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활동가 B가 말한 운동을 쉬거나 그만두더라도 ‘동료로 남아 있다는 약속’을 서로 맺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활동가들이 마주하는 여러 고비들을 고려하면 이는 일종의 생애주기나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즉 활동가인(혹은 활동가였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조직이, 동료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운동의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형태일 것이다.

“너무 확 단절해 버리면은 연결이 더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 (...) 좀 더 멀리 본다면 이게 1, 2년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자, 후원자, 또 이런 걸로 만나기 위해서는, 보낼 때 적당히 보내주는 연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나 있고.”(활동가 A)

“활동가에서 코어 활동가가 되는 데는 약간... 어떤 결심의 기회? 일단은 우리가 기대하는 코어 활동가가 뭔지를 좀 명확히 하고, ‘이것이 되어 주겠니?’ 아니, ‘될 생각이 있니?’ 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건 아닐까. 또 반대로는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활동을 마무리하는 걸 준비할 거잖아. 그 마무리도 서로 어느 정도 같이 가능해 보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걸 해보고, 마무리 짓는다. 근데 우리는, 마무리 짓는 이게 항상 애매했던 것 같아. (...) 그만두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까지 하겠어’라고 하고 말하거나 글을 쓰고 나가고. 뭔가 마무리 짓는... 의식이라 해야 되나? 내가 이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혹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런 정리를 뭔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고 헤어지는. (...) 어쨌든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결심하거나 혹은 마무리 짓거나 하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뭔가 스스로 던져보는 혹은 그 결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활동가 E)

“운동을 어느 정도, 그니까 믿고 의지하던, 같이할, 함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그런 정말 동료라면 떠날 때도 좀,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연결을 이어갈지 터놓고서 좀 얘길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뭐, 꼭 그 정도 아니어도 20대가 됐을 때, 그리고 좀 이제 내가 쪽 직업적으로 활동가로 살 건지 이런 걸 고민,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걸까? 근데 또 그게 좀 너무 옛날의 그… 혁명 이런 운동에서, 사회진출 준비시킨다고 하나? 어느 지역 어디 취업 해라 하는. 옛날 고등학생운동에선 막, 이제 어느 대학 가서 운동해라 하면 진짜, 입시공부해서 거길 갔다는 사례도 이제 들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삶을 좀 컨트롤하는 느낌이 안 되게, 안 되게 해야겠지 만.”(좌담 중 연구자 공현)

우리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운동 지속가능성에 관해 현실과 과제를 연구하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만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하는 고민과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둘이 아주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았고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었기에, 운동을 그만하는 것 역시 분명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청소년인권운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는 마음과 그만하는 마음이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단지 같이 만나고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 정도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을 계속하는 과정과 중단하는 과정, 자기의 삶 속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의미화하고 살아갈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은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조각이다.

(2) 남은 과제와 고민

이번 연구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상황에 집중했지만, 연구를 마치고 정리하면서 청소년인권운동보다 더 넓은 차원의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하는 마음’에서 살펴보았듯이 활동가들이 부딪치는 어려움과 고민은 청소년인권운동의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뒤 남은 질문과 고민은 청소년인권운동만이 아니라 인권운동 전반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아우르는 것이 많았다.

그만하는 마음 중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권운동의 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약하다는 점이 청소년인권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활동가들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운동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저평가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미성숙에 의한 것으로 칭한다는 점에서 이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듣는 비난과 닮았다.

인권·시민활동가들이 자주 받게 되는 “나중에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시선은 결국 운동이 개인의 출세 도구일 거라는 의심이면서 동시에 운동 자체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이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도 이런 눈총을 자주 받으며, 청소년기의 운동이 이후 다른 운동 또는 제도권 정치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심이나 예측, 때로는 기대를 받는 빈도는 적지 않다. 운동이 그 자체적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잇속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애들’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며 공익적 운동의 진의를 의심하며 활동가들에게 속물적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 예단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비청소년인 활동가들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면서도 그와 비슷한 공격을 당할 때가 많다. 이는 사회적 소수

자,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부정하면서 비당사자인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편견과 몰이해는 일정 부분 인권운동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실제로 많은 인권·시민활동가들이 운동의 가치와 무관하게 제도권 정치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고 운동에서도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 면도 있다. 따라서 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어떻게 인식하며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적절한 평가와 함께 인권운동의 가치와 의의를 지켜 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면담 참여자 중 몇몇은 청소년인권운동 속에서 인권운동의 언어나 논리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피해자화하면서 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운동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설정하는 사례를 고민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언행이나 운동이 개인에게 보상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를 마주했던 경험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의 과제로 다루기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번 연구 결과에는 신지 않았다.

운동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포용적인 분위기와 열린 문화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의 몫이다. 만약 운동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체의 상황이나 여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람들 간의 권한 및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운동 조직은 사회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구성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곳이다. 그런데 어떤 활동가나 지지자, 후원자들은 운동이 친절이나 물질적 대가 등을 자신에게 '마땅히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낸 만큼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개인의 시간을 들인 곳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런 모습은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과 상호적 관계성을 지향하기보다 시혜적·수동적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좁게 보면 이러한 태도의 문제 역시 운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일종의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확산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운동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운동마다, 조직

마다 처해 있는 맥락과 상황이 달라서 신중하게 살피고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비민주적 조직 문화, 소통의 부재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체의 규모와 의제의 성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해석과 관점이 적절한지에 관해 더 풍부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례가 활동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변아웃의 이유도 되는 것은 명확하기에,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활동가 재생산 차원에서 이후에 다룰 과제로 남겨둔다.

이 연구 결과에 담긴 내용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짧게나마 직접 참여하거나 곁에서 이 운동을 지켜봐 온 이들은 한 번쯤 이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고민, 때로는 사적으로 나누었던 고민을 결과 보고서 형태로 모아내고 풀어본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이번 연구에 담긴 문제의식과 과정을 공식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3) 짧은 에필로그

이야기 1

본격적으로 인터뷰 후보를 정하기 위한 회의 자리. “생각보다 많은데?” 활동 시작 시기, 활동 기간, 그만둔 시기, 대학 진학 여부, 활동 지역 등의 기준으로 한 명, 한 명 떠올리다 보니 꽤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1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며 최종 선정된 인터뷰이들. 이별에 익숙하다는 것은 이별이 많다는 것. ‘그만큼 함께했던 사람들도 많다는 뜻인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이야기 2

‘전 활동가’를 만나는 건 조금 어려웠다. 활동 시기에 따라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걸 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섭외 연락을 할 때마다 긴장되었다. 그래도 조심스레 전화를 건다. 아예 전화 연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오랜만에 건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면 거절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다시 회의를 한다.

이야기 3

우리에게 이번 연구 과정이란,

옛날 옛적 사진을 찾아보면서 그때의 화질에 감탄하다.

“그때 그 행사가 무슨 유행어 따서 했었던 건데” 하며 시간 여행을 하다.

한때는 매일 얼굴 본 사이지만 지금은 이름도 희미해진 누군가를 떠올리다.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워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수정하며 아이유의 노래 「에필로그」를 들었다. 누군가는 슬프다 하고 누군가는 개운하다고 하는 노래. 우리에게 이번 연구가 그렇지 않았나 싶다.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며 빈자리를 느끼게 되니 슬프고,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우면서도 몽클하고, 보고서로 정리하고 나니 뿌듯하고…。 인터뷰 과정은 ‘삶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함께였음을’ 물씬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어쩌면 함께했던 이들은 이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 아닐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궈야 할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확할 것들이 많은 게 아닐까. 우리는 연구를 통해 이 운동을 지켜온 ‘우리’를 확인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용기를 얻었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공헌·툇코, 2016,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 벗.
- 공헌·배경내, 2020, 「“청소년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정치”를 위하여: 청소년 참정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 공헌·전누리, 2016, 『우리는 현재다』, 빨간소금.
- 국가인권위원회, 2020,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4권.
- 김정의, 2006, 『한국소년운동론』, 해안.
- 배경내, 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육성철, 2008, 『세상을 향해 어퍼컷』, 산티.
- 이영룡·명수민, 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교육공동체 벗.
- 이주영, 2014, 『어린이 문화 운동사』, 보리.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7, 『저요, 할 말 있습니다』, 시대익창.
-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2002, 『왜, 지금, 청소년?』, 또한나의문화.
- 청소년운동우물모임, 2016, 『청소년운동 우물우물: 정체성과 역사 외따옴 부우~』.
- 최명표, 2011,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 투명가방꾼, 2015,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오월의봄.
- 하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2017, 『인간의 조건』, 한길사.

논문 및 보고서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2019, 「활동과 삶에 대한 2019 공익활동가 이야기 자료 집」.
- 권영은 외, 2019,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인권재단사람·평등과연 대로인권운동더하기.
- 김연주·나영정, 201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8호.
- 김영지, 2001, 「청소년 대안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 활용 실태와 의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52호.

나효은, 2020, 「2008년 촛불 시위와 10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촛불소녀’를 중심으로」, 『NGO연구』.

박승하·이은정, 2020,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고찰」, 2020 활력향연.

배경내, 2012, 「학생인권, 열망에서 법적 현실로: 학생인권 보장 입법의 중요성」,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2호.

양돌규, 2006,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성이·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이소영, 2011,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의 욕망과 저항: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15권.

이창호·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3호.

전누리, 2016,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 진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조지혜, 2021,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저항, 탈주, 생성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4권 2호.

홍성수, 2000, 「규율과 복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저항: 두발 제한 반대 운동」, 『당대비평』, 13호.

신문, 정기간행물 기사, 문건 등

공현, 2012, 「전환기의 청소년운동」,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54호.

공현, 2013, 「‘청소년운동론’ 예고편」, 『오늘의 교육』, 13호.

공현, 2016, 「망하는 것이 청소년운동인지 우리의 인생인지」, 『오늘의 교육』, 30호.

공현, 2016,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인권우름』, 제474호.

김이정민 기자, 2006, 「청소년 ‘선도운동’에서 ‘인권운동’으로」, 『일다』, 2006년 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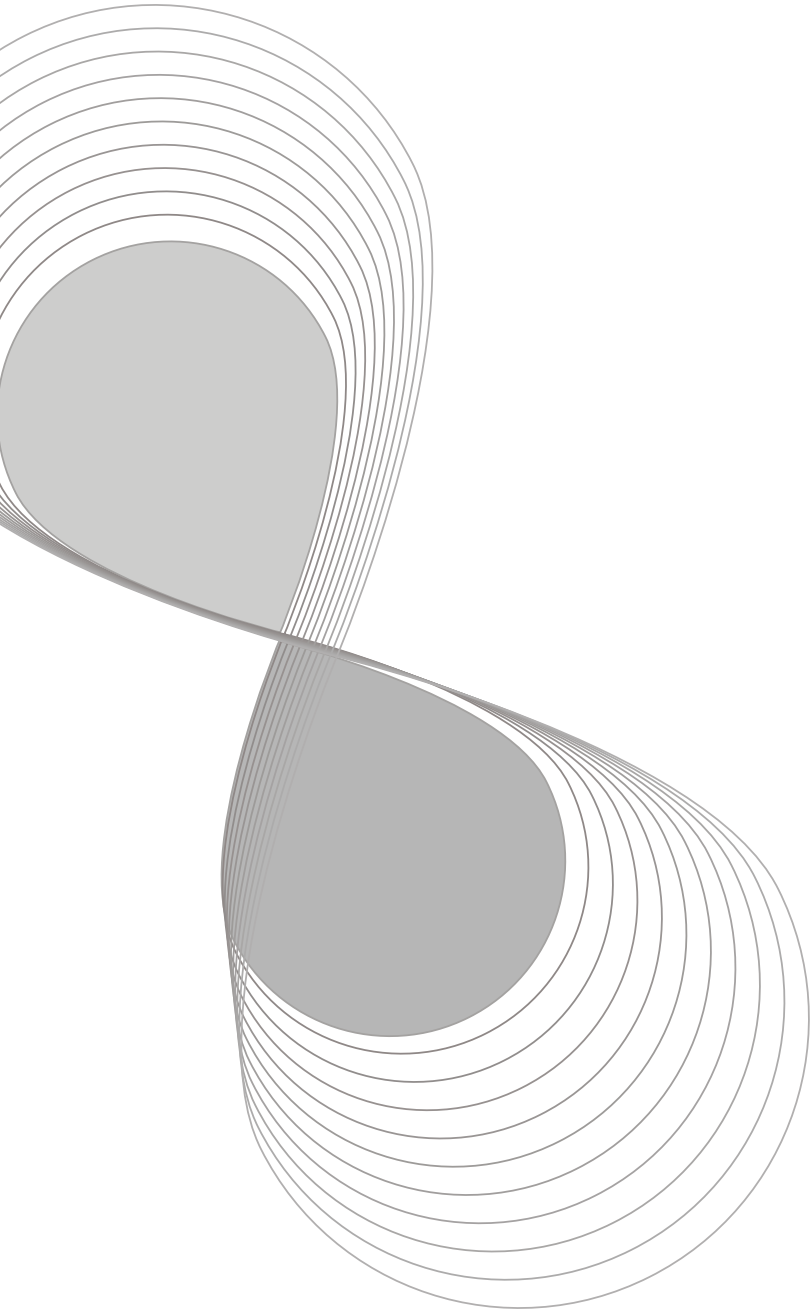
난다, 2019, 「운동이 이어지려면 사람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별에 익숙해지는 운동, 도 돌이표 운동을 넘을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결과 보고회, 2019년 11월 28일.

문이정민 기자, 2004, 「청소년 없이 ‘청소년운동’ 없다」, 『일다』, 2004년 12월 27일.

신윤동욱 기자, 2000, 「명멸 거듭한 중·고생운동」, 『한겨레21』, 321호.

유강문 기자, 1997, 「청소년 해방구를 일구는 여린 씨앗들」, 『한겨레21』, 1997년 7월 31일.

황윤태 기자, 2020, 「[단독] 3년간 스쿨미투 332건…교육청, ‘사생활 보호’ 이유 비공개」, 『국민일보』, 2020년 10월 6일.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퍼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